

제1장
구진실화



1. 천마와 아기장수

계양산에서 큰 활기가 서쪽으로 뻗쳐와 형성된 천마산의 원래 이름은 천마산(天馬山)이었다. 이 곳에 천마가 살았다는 전설, 그리고 이 산의 남쪽 아래에 아기장수가 태어났었다는 전설이 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산 속에는 양어깨에 날개가 달린 천마가 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깝게 보인 적은 없었다. 이따금 말 울음 소리가 들리고, 동이 터 오는 새벽 하늘에 날개를 힘차게 저으며 날아가는 말을 멀리서 본 사람은 더러 있었다. 사람들은 구태여 찾아 올라가 천마를 보려 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고 극성스런 청년들이 온 산을 헤매었으나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근처에 영웅이 태어나고, 그 말을 타고 출정할 것이라는 신령스러운 전설 때문이었다.

조선 중기, 남쪽 아랫마을에 합천이씨(陝川李氏)가 몇 가구를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천마산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캐며 살았다. 이 집안에 젊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건강하고 착했으며 아내도 부지런하고 암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부부였으나 결혼 십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호랑이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하고 꿈인데다 몽롱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듯한 알 수 없는 기운이 몸에 느껴졌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새벽에 길몽을 꿴어요. 아기를 가지려나 봐요.”

꿈 내용을 들은 남편은 희색이 만면했다.

“태몽이면 얼마나 좋겠소?”

부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여쭙었다. 모두들 아들을 얻을 좋은 태몽이라고 했다.

이씨 아내는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지냈고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이씨는 아내와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아내도 길쌈을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천마산 깊은 골짜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그것은 조용히 새벽 공기를 흔들며 들려오고 있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압하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 울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고 품격이 높게 느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상서스러운 소리였다.

그 날 낮, 이씨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다.

산파역을 맡은 할머니가 말했다.

“고추예요. 튼실한 고추를 달고 나왔다고요.”

아기 엄마와 아버지는 삼신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삼신할머니, 이렇게 튼튼한 아들을 점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기는 눈이 부리부리하고 총명해 보였으며 어깨도 넓었다. 아기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등 일가친척들도 달려와 늦게 아들을 얻은 부부를 축하했다.

아기의 몸을 씻고 배내옷을 입히던 산파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를 좀 봐요. 아기 등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징조로만 여기고 미소를 교환했다.

아기는 범상하지 않았다. 열흘만에 걸었으며 한 달만에 뛰어다녔다. 그리고 백일이 되자 맷돌을 번쩍번쩍 들어올렸다. 몸도 민첩해서 방바닥에서 벽을 타고 달려 올라가 천장을 타고 뛰다가 반대편 벽을 타고 뛰어내려왔다. 초가지붕 위로 휘휘 날아 올랐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천마산 꼭대기로 달려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하였다.

“아아, 우리 마을에 아기장수가 태어났구나!”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관아에까지 전해졌다. 고을 사또는 몸소가마를 타고 마을로 와서 아기를 보고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다. 아기장수

가 나오면 역적이 되어 나라를 해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는 아기장수가 콩을 한 줍 뿌리면 그것이 병사가 되고 팔을 한 줍 뿌리면 그것이 모두 군마가 되어 막강한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아기의 친척 중 가장 나이가 든 어른에게 말하였다.

“아기를 광에 가두어라. 내가 조정에 보고를 하면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만약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일가가 능지처참 당할 것이다.”

사또가 돌아간 뒤 아기장수의 부모는 아기를 광에 가두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아기장수를 죽이기 위해 서울에서 관군이 달려온다는 것이었다. 아기장수와 함께 일가를 모두 죽일 것이라는 말도 들렸다.

아기장수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야, 나를 용서해라. 네가 관군에게 잡혀 죽고 일가가 몰살당하느니 너의 목숨을 내가 끊는 게 낫다.”

아기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다.

“저를 묻을 때 콩 다섯 섬과 팔 다섯 섬을 같이 묻어 주세요.”

아버지는 아기장수를 다듬잇돌로 눌러 죽이고 땅에 묻으며 콩과 팔을 함께 묻었다.

이튿날 관군이 도착했다.

“어서 아기를 내놓아라.”

아기장수의 집안 어른들은 관군 장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죽었습니다요. 나라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하여 아비가 돌로 눌러 죽이고 묻었습니다요.”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의 후환을 없애고 우리 관군의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잘한 일이다.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라.”

관군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기장수가 살아 있고 아기와 함께 묻은 콩은 군사가 되고 팔은 군마가 되어 막 아기장수를 호위하

여 일어나려는 것이었다.

관군 장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서 진압하라. 어서 저 역적들을 죽여라!”

아기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나를 역적이라 하십니까. 머지않아 조국에 쳐들어올 적군을 맞아 싸우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관군은 칼을 내리쳐 아기 장수를 죽였다.

그 때였다. 천마산 골짜기에서 천마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흔들며 들려왔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다. 천마가 힘차게 날개를 휘저으며 달려와 아기장수의 무덤 위를 선회하는 것을. 천마는 한나절 동안 그렇게 하늘을 날며 슬피 울다가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장수의 무덤 옆에 천마를 묻어 주었다.

몇 해 뒤, 왜군이 쳐들어왔다. 조선의 군대는 왜군을 당하지 못해 수많은 목숨과 조선의 강토가 그들의 발굽에 유린되었다. 사람들은 탄식하였다. 아기장수가 살아 있었으면 천마를 타고 날아다니며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을 것이라고.

【해설】 심곡동이 도시계획으로 지각(地殼) 전체가 뒤바뀌기 전 마을에 말무덤이 있었다. 지금 한국통신 건물에 인접한 녹성아파트 자리로 무덤처럼 둔덕이 볼록 솟아 있었고 그 곳을 ‘말무덤’이라고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천마의 무덤이라고 여겨 왔다.

우리말의 접두사 ‘말’은 크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말조개, 말벌이 그 예이며, 큰 무덤을 ‘말무덤’이라고 부른 예도 많다. 심곡동의 말무덤이 ‘큰 무덤’의 뜻이었을 개연성도 있다. 아기장수의 무덤은 전설 속에 있을 뿐 구체적인 장소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마산이 철마산으로 바뀐 것은 강제합방 직후 일제가 전국을 측량할 때 이곳에 온 일본인 측량기사가 ‘천마’를 ‘철마’로 잘못 듣고 무심하게 기록했기 때

문이라고 전해진다.

이 산 중턱 암석에 하늘을 향해 비상한 듯한 말발굽이 많이 새겨져 있다. 인위적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형상인데, 힘차게 달려 도약하는 듯한 자국이고 허공을 향해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천마산이라는 지명이 붙었었고 그런 전설을 뒷받침했다.

천마설화는 지상의 인간이 하늘로 오르고 내리는 신성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상징이다. 한민족에게 말은 제왕 출현의 징표로 신성시되었으며 천마는 날개를 움직여 하늘로 날아올라 하늘과 교통하는 상상 속의 신령한 동물이었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혁거세 신화에도 나타나며, 동명왕 신화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경주의 천마총의 천마도는 한민족의 그런 신성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철마산의 암벽 위의 패인 말발굽 형상을 보고 천마에 대한 상상력을 넣어 지명을 붙인 것은 우리 조상의 길고 오랜 의식에서 유래한다. 철마산의 아기장수 설화는 비슷한 유형으로 전국에 분포된 한민족 고유의 신이담(神異談)의 하나이다.

2. 고현리 최장사

고현리(古縣里)는 공촌동의 옛 지명이다. 그 지명은 이 곳이 옛날에 행정소재지였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마을의 원로들은 신라 때 계양산 서쪽 갈산(葛山) 아래에 큰 마을이 있었고 그 곳이 관아가 있던 자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때부터 이 마을에 최씨가 살았다고 말한다. 물론 최씨는 지금도 공촌동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 이 고현리의 최씨 집안에 장사가 태어났다. 그 때는 조선 왕조의 기운이 쇠하여 관리들의 가렴주구는 기승을 부리고 백성은 굶주렸으며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현리에서 가까운 계양산의 징맹이 고개에도 군도(群盜)가 자리잡고 서울과 부평으로 가는 행인들의 짐을 털고 있었다.

최씨 집안의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만에 걸음마를 하고 백일이 지나면서 고살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첫돌이 지나자 멧돌을 번쩍번쩍 들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최씨 가문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집안 어른들은 모여서 말하였다.

“어지러운 시기에 장사가 태어나면 역적이 된다 하여 나라에서 군사를 보내 죽인다는데 저 애를 어찌할 것인가.”

“도끼로 어깨 힘줄을 끊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에서도 그냥 놔둔다던데.”

“방법이 있소이다. 아이에게 장사가 아닌 척 행동하게 하면 되지요. 아기장수는 어렸을 때만 위기를 넘기면 된다니까요.”

집안 사람들은 단단히 타일러 아기에게 장사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아기는 천성이 착한데다가 부모와 형제가 하도 우박질러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라났다.

점점 자라 마침내 청년이 되었을 때, 가문 사람들은 아무도 최장사를 말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선 왕조도 국운이 기울대로 기울어 부평 땅 변두리에 장사가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

최장사는 힘이 넘쳤다. 머리띠에 맷돌을 달고 다녔으며, 쌀 한 섬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우마차에 실었다. 그리고 벼섬을 공깃돌 놀리듯이 가볍게 던지고 놀았다. 수백 근 짜리 통나무를 거뜬히 등에 지고 산을 내려왔으며 큰 바위를 마치 종잇장 들듯이 들어올렸다고 전한다.

그는 전국을 돌며 씨름판에 나가 우승을 하고 상으로 받은 황소를 끌고 돌아왔다. 용모도 준수하여 남도의 기생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고향에 아름다운 아내도 두고 있었으나 결국 그렇게 주색에 몸을 망쳤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복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계양산의 정기를 다시 받은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몸이 회복되면 다시 방랑 길에 나섰다.

“여보, 제발 집에 있어 줘요. 힘이 장사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내가 애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한테 겨우 고향집에 틀어박혀 농사일이나 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소. 세상이 나를 부르는 걸 어떡하오.” 그는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중년이 되어 더 이상 씨름판에 나갈 수 없을 때에야 그는 집에 몸을 의탁했다.

그가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대궐에서 죽음을 당하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는 경상도 영해군에서 기병한 신돌석이라는 소년 장사 의병장도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씨름을 하러 경상도 영해 땅으로 들어섰다가 여덟 살 먹은 소년 장사를 본 적이 있었다. 소년은 씨름판에서 어른들이 살바를 한 번 잡아 보라고 하여 그와 대적한 적이 있었다. 그가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의젓하고 기품이 있어 큰 인물이 되겠구나 여긴 터였다.

그 신돌석이 수십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을 습격해 이름을 세상에 떨

치고 있었다.

그 소문을 듣고 고현리 최장사가 탄식했다.

“아, 그 애가 일어났구나. 나도 그렇게 살았어야 해. 하늘이 내게 큰 힘을 준 것은 훌륭한 일을 하라는 뜻이었어. 하지만 나는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면서 살아왔어.”

그는 인근 마을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뜻을 펴려 하였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인천의 서부지역이란 곳이 비록 계양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긴 하지만 몸을 숨기며 의병활동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1차 의병전쟁은 끝나고 말았다.

십여 년이 지나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당하면서 다시 의병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는 이미 늙은 몸이라 기병에 실패했다.

그는 결국 평범한 필부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해설】 고현리의 아기장수 이야기가 심곡동의 천마산 아기장수 설화처럼 극적인 요소를 갖지 못한 것은 구비전승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기장수 설화는 한국 설화의 중요한 제재로서 전국에 약 30개가 있는데 대체로 유사한 전형을 갖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기가 태어나지만 탄생 즉시 죽거나, 산다 해도 관군에 의해 그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설화의 전승집단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그리고 조선 후기에 거둬진 민중봉기와 그 실패를 아기장수의 비극적 종말로써 해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설화에는 새로운 영웅을 갈망하는 당대인들의 소망이 역설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현리의 아기장수 이야기는 민중의 소망을 담으며 계속 재창조되고 확장되어 서사구조를 갖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3. 계양산의 장사굴

계양산 남쪽에 장사굴이라고 불리는 작은 굴이 있다. 입구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다가 앞에 소나무와 관목들이 무성해서 여간해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입구가 좁아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지만 안에 들어서면 바람이 없이 아늑하고 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예닐곱 명이 앉을 수 있다.

옛날에 사냥꾼 세 사람이 계양산에 올랐다가 비를 만나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그 곳을 발견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여보게들, 이리 오게. 여기 굴이 있네.”

사냥꾼들은 허리를 납작 숙이고 굴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비바람이 전혀 들이치지 않고 그리 컴컴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방안에 들어온 듯 편안하였다.

한 포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긴 주인이 있네. 여기 포대기와 물그릇과 도기로 만든 잔이 있네.”

그 때였다. 빗소리에 섞여 나뭇가지 스치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꾼들은 여차하면 당길 생각으로 활에 화살을 재었다. 한 사람이 굴 앞에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목소리는 옛되게 느껴졌으나 워낙 커서 사냥꾼들은 그가 소년 거인이거나 소년 장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우리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냥꾼들이요. 미안하오. 우리는 비를 그으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있는 굴인지는 몰랐소이다.”

“내가 일단 들어가리다.”

굴의 주인은 끄 소리를 내며 배를 깔고 안으로 들어왔다. 열두 살쯤으로

짐작되나 키가 육척이 넘게 컸으며 온몸이 무쇠처럼 단단해 보였다. 그도 사냥을 하며 사는지 몸에는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고 막 잡아온 듯 노루 한 마리를 피문은 창과 함께 구석에 던졌다.

그의 몸을 보는 순간 사냥꾼 세 사람은 그를 힘으로 꺾을 생각을 버렸다. 그가 아무렇게나 던진 무쇠 창이 그들로서는 간신히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겁고 크기 때문이었다.

“행색을 보니 아저씨들은 사냥꾼들이 모양인데 배고파 보이는구려.”

“그렇네. 사흘 동안 거의 먹지 못했네.”

소년장사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킨 뒤 잡아온 노루를 쭉쭉 찢어 꼬챙이에 꿰어 구어 권했다.

배고픔을 면한 사냥꾼들이 물었다.

“너는 어떤 연유로 혼자 이 굴속에 살게 되었느냐?”

소년 장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그냥 여기가 내 집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나를 낳으셨으니까요.”

“모친은 지금은 어디 계신가?”

“제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어요. 너는 철룡(鐵龍) 장군의 아들이다, 그분은 모함을 받아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럼 그 때부터 혼자 살아왔다는 말이나?”

“네.”

이 날 사냥꾼들이 소년 장사와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달 뒤에 그들이 다시 이 곳을 찾았을 때는 소년 장사가 머문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 장사가 계양산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근방 사람들은 간혹 소년 장사의 모습을 멀리서 보았던 것이다. 절구 만한 바위를 ping ping 집어던지며 노루를 잡는 모습도 보았고 지름이 한 뼘은 될 나무를 똑똑 분지르는

습도 보았다. 아마도 근처의 다른 굴속에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소년 장사는 어른이 되었을 때 거인처럼 컸으며 바위를 밟았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바위 위에 꽤인 발자국이 남았다. 그는 어디론가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땅이 쿵쿵 울리고 놀란 짐승들이 사방에서 뛰었다. 그를 본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었다.

소년 장사가 태어나 살았다는 그 장사굴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왜군이 쳐들어오면 부평향교를 분탕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생들은 향교에 있던 공자를 비롯한 명현들의 위판을 숨길 곳을 찾게 되었다.

“왜놈들이 향교라는 향교는 모두 불태워 재로 만든다는데 어떡하면 좋소?”

향교의 어른인 전교(傳敎)가 말하였다.

다른 유생들은 말이 없는데 계양산 아래 고현리에 사는 유생이 말하였다.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는 소년장사의 전설이 있는 그 장사굴에 가본 적이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전교는 유생들과 더불어 그의 안내에 따라 위판들을 모두 가져다가 거기 모셨다. 그리고 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꺼내다가 향교에 모셨다.

그 때 전국의 향교는 대부분 불에 탔고 명현들의 위판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각지의 향교에서 찾아와 그것을 전범(典範)으로 삼아 다시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모셨단 말입니까?”

타지에서 온 유생이 물으면 부평 전교 어른은 손으로 계양산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저 계양산에 있는 장사굴이 지켜 주었지요.”

뒷날 계산동에서 박거사라는 도사가 신통력 있는 예감 때문에 세상이 알려졌다. 그는 세상의 길흉을 예측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으며 때때로 부평 저자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허욕을 버리고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중이 말하였다.

“참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경건해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이따금 돛자리를 펴놓고 앉아 사람들의 사주를 보아주었다. 그러나 복채는 받지 않았다.

“거사님은 어디서 도를 깨치셨습니까?”

누군가가 물으니 그는 계양산을 가리켰다.

“저 산에 있는 장사굴에서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 장사굴을 찾아갔으나 박거사는 거기 없었다.



4. 나그네를 희롱한 계양산 불여우

‘안남산 불여우’라는, 계양산 근방 사람들에게 통하는 관용구가 있다. 불여우란 불빛처럼 털 색깔이 붉은 여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산에 서식하는 여우들이 거의 그러했다. 안남산의 불여우들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거의 없었으나 약을 대로 약아 빠져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았다.

옛날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선비가 한양으로 가려고 계양산 경명현을 넘고 있었다. 도둑이 많은 고개라 일행 50명이 같이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는 배탈이 나서 산속에서 일을 보았다. 커다란 떡갈나무 앞으로 밑을 닦고 고의춤을 올려 매며 바라보니 일행은 가버리고 없었다.

“경기 지방은 인심들도 나쁘군. 나 혼자만 남기고 먼저 가 버리다니. 어서 가야지. 도둑이 나올지도 몰라.”

그는 발에 불이 나도록 고갯길을 달려 올라갔다. 그러나 경사가 급해 이내 숨이 턱턱 막혔다.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캐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몸집 작은 여우들이었다.

그놈들은 그가 일행에서 떨어졌으며 몹시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대여섯 마리가 깡충거리며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재주를 넘고 까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우를 몇 번 보았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수를 본 적도 없었다.

“비켜라, 이놈들아!”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올라 지팡이를 물어 가로채더니 캥캥거리며 풀숲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을 신호로 여우들은 한꺼번에 그에게 달려들었다. 물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발뒤꿈치를 물어 짚신 짚을 벗기고, 머리 위로 날아올라 갓을 벗겼다. 그리고 등뒤로 뛰어 올라 괴나리봇짐의 어깨 멜빵을 이빨로 끊으려 했다.

백 년 묵은 여우가 둔갑한다더니 그런 놈들이 몰려온 듯싶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는 단단히 다짐하였지만 여우들이 난리를 치는 통에 옆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마음이 불안하여 마구 달리다 보니 길이 좁아지고 바위들이 앞을 막았다. 아, 길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거꾸로 달려나왔으나 큰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해가 꼬박 넘어갔다.

다행히도 여우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 때 그는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였다. 거기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립문 앞에서 목을 뿔고 들여다보았다. 거기 묘령의 처녀가 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내가 여우한테 흘려 있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였으나 의지와는 달리, 여우가 나오는 혼한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사립문을 열고 들어갔다.

“고갯길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소이다.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처녀가 얇전하게 말했다.

“여기는 산도독들이 있는데다가 불여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천 명이 모여서 넘으라고 천명고개라 하는데 왜 혼자 길을 떠났습니까?”

그는 배탈이 나서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 그냥 우물거렸다.

“혹시 여우를 보셨나요?”

선비는 머리를 끄덕였다.

“사실은 여우 몇 마리가 나타나 어찌나 까부는지 경황 중에 길을 잃었소이다.”

처녀는 놀라는 얼굴을 했다.

“큰일날 뻔했군요.”

처녀는 조용조용 움직여 밥상을 차려서는 툇마루 위에 올려주었다. 몸매

와 행동이 매우 부드럽고 고왔다.

선비가 물었다.

“왜 처녀는 혼자 산 속에 살지요?”

처녀는 머뭇머뭇하다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소녀는 경명현의 산도둑 부두목의 딸입니다. 두 목과 아버지와 부하들은 먼 고장으로 부잣집을 털러 갔지요.”

선비는 처녀의 솔직하고 소박한 말에 호감이 갔다.

처녀가 다시 말했다.

“부끄럽지만 선비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는 손갈을 든 채 처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비록 도둑이지만 저를 몹시 사랑하십니다. 양반 댁을 털 때는 책도 갖고 오십니다. 덕분에 소녀는 글을 깨쳤사옵니다. 지금은 〈소학〉을 읽는데 어렵습니다.”

선비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산중에서 혼자 책을 읽다니요?”

“겨우 시늉만 할 뿐이옵니다. 아버지나 아버지 동료들은 모두 까막눈이고 아무에게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풀어 주실 수 있는지요?”

선비는 선선히 승낙했다. 공부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고, 끝내 과거시험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사서와 삼경은 읽은 터였다. 〈소학〉 따위는 식은 죽 먹기처럼 자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선비는 처녀에게 〈소학〉의 어려운 부분을 가르쳐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처녀는 방안에 눕고 선비는 뒷마루에 누웠다. 밤 빼꾸기가 울고 부엉이도 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그는 처녀가 손을 잡는 바람에 눈을 떴다.

“산중이라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그가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자 처녀가 그의 품에 안겼다.

“평생에 선비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게 소원이었사옵니다.”

선비는 처녀와 하룻밤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감회가 컸다. 그리고 산속에서 보내는 밤이 행복했다. 전라도에서 보름동안 머나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게 웬 행운이나 싶기도 했다.

그러나 아침에 그는 자신이 붉은여우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다가 잠에서 깨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그는 마른 나무 삭정이를 안고 숲속에 발가벗고 누워 있었다.

허무하고 아쉽고 얼떨떨한 느낌으로 일어나 옷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거 큰일났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는 어젯밤 일이 아쉬워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처녀가 있던 초막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벌거벗은 채로 큰 길을 찾아 걸어가는데 여우들이 캐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저놈들한테 흘렸었군.”

그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한참만에 그는 고갯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 살려요!”

그는 한 손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 소리쳤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말 잔등에 엮는 낡은 누비형겜으로 그의 몸을 덮어주었다.

“쫓쫓 도둑을 만나 옷을 빼앗겼구려.”

“아니오. 여우에게 흘렸었지요.”

그는 울상을 하고 말했다.

5. 계양산에 왕좌를 빼앗긴 분틀메

분틀메는 두밀의 가운데 있는 산으로 해발 75m쯤 된다. 구전되어 온 민담이 하나 있다.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였다. 땅위에는 물도, 나무도, 산도, 들도, 아무것도 없었다. 옥황상제는 먼저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여기저기 크고 작은 산을 흙으로 빚어 툭툭 던지기 시작했다.

“강 서쪽이 텅비었군. 이쪽에 큰 산을 하나 놓아야겠군.”

옥황상제는 지금의 분틀메 자리를 겨냥해 흙을 던졌다.

“이런, 흙덩이가 너무 작군.”

옥황상제는 큰 덩이를 웅장한 모습으로 빚어 다시 던졌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휘 불어오고 옥황상제는 에취 소리를 내며 재채기를 했다. 그 바람에 흙반죽이 빗나갔고 옥황상제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헛김이 어찌나 센지 흙반죽은 20리를 날아가 떨어졌다. 그게 계양산이 되었다.

“아차, 두 산이 자리가 바뀌었군.”

옥황상제는 실수로 만들어 놓은 땅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때, 7공주가 악기를 연주하며 들어왔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저희의 소원을 들어 주소서.”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사랑스런 내 딸들아?”

“세상을 모두 만드신 뒤에는 저희를 인간 세상에 내려가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상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어려울 것 없다.”

옥황상제가 다시 흙반죽을 집어드는데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런 일곱 번째 공주가 부왕에게 다가와 새털 부채로 부채질을 했다.

“아버지, 피곤해 보이십니다.”

“응, 세상을 만드느라 바쁘구나.”

“눈을 좀 붙이시옵소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사옵니다.”

“그래, 나의 귀여운 막내공주가 하는 말이니 들어야지.”

옥황상제는 산을 다시 만들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용상에 비스듬히 앉아 눈을 감았다. 공주의 노래와 은은한 부채질 속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든 시간은 길었다. 그 사이에 계양산에 던져진 흙속에 살아 있던 명산의 기운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흙은 단단히 굳어졌다.

한참만에 잠에서 깬 옥황상제는 밀린 일이 많아 그 일을 잊어버렸다. 다른 곳의 산과 강을 이리저리 만들다가 한참 만에야 깜박 잊었던 일을 생각했다.

그 때도 산은 말을 하지 못했다. 잘못 만들어진 작은 산은 옥황상제를 바라보며 똑똑 눈물을 흘렸다.

“산이 눈물을 흘리다니, 몹시 억울했던 모양이구나. 대신 너에게 지혜를 갖게 해 주마.”

그래서 그 작은 산은 거기 의지해 사는 인간과 동물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기를 받아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았다.

그러나 산은 여전히 억울함을 떨치지 못해 이따금 우우웅 소리를 내어 울었다.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고 ‘억울하고 분하다’는 뜻을 살려 ‘분통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변하여 분통메가 되었다.

【해설】 인천대학교의 김병욱 교수는 분통메의 어원을 ‘밭다’의 어간 ‘밭’과 명사 ‘터’, 그리고 외의 복합어로 보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이 있는 산’이란 의미로 해석했다.

6. 탁옥봉의 신선

탁옥봉(琢玉峯)은 철마산의 한 줄기가 뺨쳐 내린 것으로 심곡동 앞말 뒷산을 가리킨다. 형세가 청아하고 수려하여 그런 지명이 붙었다. 이 산이 있는 심곡동은 유난히 산이 깊어 기괴울이라고 불렸다.

신라시대에도 이 기괴울 마을에는 수십 가구가 살고 있었다. 인근 마을 연일(연회동)은 직조를 많이 해서 삶을 영위하지만 이 곳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앞바다에 나가 조개나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 사람들이 밭에 물을 퍼 나르느라고 허덕이던 초여름 어느 날이었다.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대나무 샷갓을 쓴 나이 지긋한 나그네가 마을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등에 작은 괴나리봇짐을 메고 있었다.

그는 가련한 시선으로 농부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 나절만 건디게 물을 주시오. 내일은 시름을 잊게 될 테니.”

농부들을 눈을 둥그렇게 뜨고 다가갔다.

“어디서 오는 분이신지요?”

“그냥 세상을 구름처럼 떠돌아 다닙니다. 내 멀리서 바라보니 저 산이 좋아서 거기 머물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오늘밤 비가 내릴 것이니까 한 말이외다.”

농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차림새가 범상치는 않아 보이지만 하늘이 짙하게 맑은 것이 도무지 밤에 비가 내릴 성싶지 않아서였다.

사람들은 휘청휘청 걸어가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친 녀석 아냐?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비치지 않았는데 밤에 비가 온다고 하니 말일세.”

“그러게 말일세. 그리고 저 가파른 산에 머문다니? 거기 집이 있나 밥이 있

나?”

아무도 밤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늦은 오후 폭양은 땅 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다. 사람들은 절망하여 물둥이와 바가지를 던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하느님인지 한울님인지 우덜이 무신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그들은 어디선가 올려오는 피리 소리를 들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그 소리는 탁옥봉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곡조는 매우 아늑하면서도 깊어서 마치 가뭄에 지친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우리 마을에 저만큼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은 없지. 아까 그 나그네가 부는 모양이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목을 뽑고 탁옥봉 쪽을 올려다보았다. 녹음이 우거져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산봉우리 쪽에 나그네의 대나무 샷갓이 조금 보였다. 그는 팔을 옆으로 뻗치고 있었다. 옆으로 잡고 부는 긴 횡적(橫笛)이었다.

“우덜은 가뭄 때문에 목에 거미줄 치기 직전인데 신선 노릇하듯이 피리나 불고 있다니. 우리 마을에서 당장 쫓아버려야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건 사람이 부는 게 아냐.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야.”하고 범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사람들은 후두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석 달간의 가뭄을 한꺼번에 해소하듯이 빗줄기는 거세게 내렸다.

아침이 되자 빗줄기는 약해졌다. 사람들은 들뜬에 달려나가 도랑을 파고 물꼬를 텃다. 그리고 오가다가 이웃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나그네 예언이 들어맞았으니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이상한 것은 우리 마을에만 비가 내렸다는 것이야.”

“그러게 말일세. 내 생각엔 그 피리 소리가 비를 부른 것 같네.”

“내 생각도 같네. 나그네가 보통사람은 아닌 게 분명해.”

“그런데 나그네는 간밤에 빗속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저 봉우리에는 비를 피할 데가 없는데?”

비는 매마른 대지를 축축이 적시고 뗏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뒤라 사람들은 눈코뜰새없이 바빴다. 이삼 일 지나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해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가뭄을 끝나게 한 것이 나그네의 힘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비 온 날 밤, 산에서 어떻게 비를 피했으며, 이 산에 도착한 뒤 닳새가 지났는데 무엇을 먹었나 궁금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조금 장만하여 들고 갔다.

사람들이 봉우리에 올라가니 나그네는 정상에 바위에 곳곳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신비로움일까 비범함일까 이상한 공기가 감돌았으므로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내가 걱정되어 올라왔나요?”

나그네는 형형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렇습니다요. 끼니를 어떻게 이어 가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음식 보통이를 들고 온 사람이 그것을 나그네 쪽으로 밀어놓았다.

나그네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

“나는 밥을 먹지 않소. 솔잎만 먹고도 지낼 수 있소.”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표정을 하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머리 위의 솔잎을 훑어 입속에 넣고 씹었다. 그 뒤 사람들은 나그네를 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다시 가뭄이나 홍수가 나지 않고 걱정 없는 세월이 흘러갔다.

도인은 봉우리 가까운 곳에 소박한 정자를 짓고 도를 닦았다. 추운 겨울에도 산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평화가 모두 도인의 기원 때문이라고 믿으며 깊이 공경하였다. 그리고 그의 수행이 마치 옥을 다듬어 쪼는 일 같다고 여겨 그 산이라 탁옥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탁옥봉이라는 명칭은 전설 속에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다. 토박이 심곡동 사람들은 지금도 그 봉우리를 그렇게 부른다.

【보충】 그 산기슭에 조선 문종의 후궁 숙의 문씨 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되어 봉우리 옆으로 사통팔달한 도로가 뚫려 있는데, 서구청은 그 거리 이름을 탁옥로라고 명명하였다.



7. 과거길에 사랑에 빠진 젊은 선비

시천동은 고려 때 장모루(長牟婁)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 남부지방에서 고려의 왕도인 개경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하루를 묵어 갔다. 마을에 여러 개의 여각(旅閣)이 있어서 나그네들에게 침식을 제공하였다. 개경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남부 지방의 학식 높은 선비들도 이 곳에서 묵었다.

고려 말엽 기유(己酉)년 7월의 일이었다. 전라도에 사는 대갓집 아들이 천릿길을 걸어 과거를 보러 가면서 이곳 장모루촌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스무 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학문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물론 고향 사람들 전부도 그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가 묵은 여각의 주인은 구씨(具氏)였는데 그에게는 천하절색인 딸이 있었다. 젊은 선비는 그녀에게 한 눈에 반하고 말았다.

처녀는 생김새가 매초롬하고 몸매가 호리낭창한데다가 가슴이 볼록하고 저 혼자 서거나 앉아 있어도 감기는 듯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얼굴은 달걀형으로 비교적 긴 편인 목과 검은 머리카락과 조화를 이루어 남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미인이었다.

과거 보러 가는 청년 선비는 한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내 고향 섬진강의 은어처럼 나긋나긋하고 이슬 맞은 아침 꽃처럼 아름답고 싱싱하지 않은가. 저 처녀를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 밤 내 팔에 안고 저 아름다운 몸을 만지면서 잠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각 주인의 딸 또한 전라도 청년 선비에게 반했는데 그 또한 헌헌장부로 잘생긴 때문이었다. 청년은 키가 훗칠하게 크고 체구가 당당했으며 네모 널

찍한 얼굴에 두 눈이 부리부리하고 굵은 눈썹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양쪽 귀가 잘생기게 크고 약간 위로 찢어진 듯한 큼직한 입은 부귀와 굳센 의지를 가졌음을 알게 하였다. 여각에서 묵고 가는 허다한 선비들을 보아온 그녀였으나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청년은 없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는 대개 이 곳에서는 하루만 묵고 개경으로 가서 대엿새 묵으면서 총복습을 하고 예상문제를 놓고 작문을 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청년 선비는 처녀의 여각을 떠나지 못했다.

달이 휘영청하게 밝은 밤, 전라도 청년과 구씨 처녀는 달빛 속에서 사랑을 확인했다.

“남자, 나는 남자를 처음 보는 순간 혼을 빼앗겨 버렸소.”

청년이 손을 잡자 처녀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을 처음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청년은 처녀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남자를 내 곁에 둘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소.”

처녀도 나긋나긋하게 청년의 품에 안기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셔야지요. 내일 아침은 꼭 떠나세요.”

결국 청년 선비는 과거를 이틀 앞두고서야 개경으로 떠났다. 그리고 간신히 개경에 도착해 아슬아슬하게 과거에 응시했다. 결과는 낙방이었다.

사랑에 빠진 청년 선비는 자신의 낙방이 여색에 눈이 먼 때문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전라도로 가는 길에 다시 장모루 구씨 여각으로 왔다.

“여보게, 우리 딸은 잊고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여각의 주인 구씨가 독촉했다.

“우리하고 같이 돌아가세. 가서 단단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응시하러 오세.”

같이 떠난 고향 선비들이 함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는 여각 주인의 딸과 다시 사랑에 빠졌고 말리다 못한 여각 주인이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는 거기서 처녀와 몸을 섞으며 여각의 잔일을 맡아했다.

그가 물을 길고 장작을 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속덕거렸다.

“어리석은 청년이군. 선비가 머슴 노릇을 하다니.”

“그러게 말일세. 처음엔 눈에 충기도 있어 보이고 몸도 탄탄해 보였는데 이제는 다 풀어졌어.”

“이 사람아, 당연하지 않은가. 밤마다 그 나긋나긋한 여자한테 정기를 빼앗겼을 테니 말일세.”

한편 그의 고향집에서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몇 달이 지나자 무슨 사단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젊은 선비는 고향에서 같이 온 선비들이 돌아갈 때, 자기 집에서 그가 왜 안 오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단단히 당부해둔 터였다. 귀향한 선비들은 약속을 굳게 지키고 모르겠노라고 대답했었다.

그러나 그 집 아들이 부평의 장모루촌 여각에 있다는 소문이 전라도까지 흘러갔다. 과거시험 때가 아니더라도 전라도 사람들이 장모루촌에 묵는 일은 많았던 것이다. 청년 선비는 그것을 염려하여 되도록 숙박객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지냈지만 마침내 고향에 알려지고 말았다.

젊은 선비의 형이, 아우와 함께 과갓길 떠났던 선비들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여보게, 사실대로 말해주게. 내 아우가 부평의 장모루라는 곳에 있는 여각의 주인집 딸에게 빠져 머슴노릇을 하고 지낸다는데 사실인가?”

과갓길에 동행했던 선비들은 순순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길게 안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먼저 내려가라고, 며칠 늦게 출발하겠노라고 말하며 부형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 그 처자가 내 아우가 빠져들 정도로 절색이더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양귀비가 조선 땅에 환생한 게 아니냐, 저희도 그런 말을 하며 그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선비의 형은 가문에 알렸고 가문은 발각 뒤집어졌다.

“내 아들이 여색에 빠져 일생을 망치고 있다니, 아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당장 가서 이놈을 잡아와야겠다.”

아버지는 탄식하며 옷을 입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님, 그냥 집에 계십시오.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코뚜레처럼 고삐를 만 들어서라도 어리석은 아우를 끌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그놈이 그렇게 빠져버렸다면 네 힘으로 안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전라도에서 젊은 선비의 아버지와 형이 길을 나섰다. 보름이 걸려 장모루촌에 도착해 여각을 찾은 두 사람은 젊은 선비를 보고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

“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정녕 내 아우란 말이냐.”

젊은 선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냐. 잘못을 뉘우치면 됐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해라.”

젊은 선비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버님을 떠나 고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댁 처자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놈아, 끝까지 불효를 할 셈이냐!”

아버지와 형은 기가 막혔다.

그 때, 전라도에서 어른들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처자가 방으로 들어와 큰절을 올렸다. 그녀를 보는 순간, 아버지와 형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과연 천하 절색이기 때문이었다.

전라도에서 온 부형은 사흘 동안 아들과 그 처녀를 설득해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처자와 여각주인에게는 장래를 기약한다는 말을 남겼다.

전라도의 젊은 선비가 다시 과거를 보러 왔는지, 장모루의 처녀와 사랑을 회복해 해로하며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사랑에 빠져 일생을 그르치지 말라는 한 줄의 시구가 남아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膾炙)되었다. 그리고 전국에 퍼져서, 과거 보러 가는 전국의 선비 집안에서는 자제에게 이 글을 써 주고 전설을 들려주어 과갓길에 여색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였다.

桂陽山下侵具女 配年鵬頭怨無心(계양산하침구녀 배년봉두원무심.
계양산 아래 구씨 처녀를 사랑하여 기유년 과거에 낙방하면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시구를 보면 그 젊은 선비의 회한이 드러난다. 물론 이 시를 그 청년 선비가 지었는지, 형이나 아버지가 지었는지, 혹은 전설을 들으며 후세의 풍류가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시문 중 배년봉두(配年鵬頭)에서 배는 기유년(己酉年)을 뜻하고 봉(鵬)은 2월, 두(頭)는 초순을 의미한다.

고려가 패망하고 장모루촌도 왕도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역사와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사랑을 경계하는 그 시구는 최근까지도 근처 마을에 전설과 함께 구전되어 왔다.

【보충】 시천동에 꽃뿔 또는 화산(花山)이라고 부르는 작은 산이 있다. 시천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의 앞산으로, 계양구 목상동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다. 꽃뿔오리 형상이어서 붙여졌다.

구슬원(球瑟院)이라는 여각촌이 꽃뿔 밑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곳에서는 왕도 개성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길목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공치기 놀이를 하고 비파를 뜯었다고 전한다.

화산 앞에서 검암동 바라미 마을까지를 장모루(長牟婁)라고 부른다. 일설에 이 곳이 고려 왕조 때 부평을 통치하던 수주(樹州)의 소재지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장모루 바로 옆에 삼국시대와 고려 때 역마를 관리하던 구슬역(球瑟驛)이 있었고, 주변에 나그네들을 위한 여각들이 있어서 구슬원과 함께 크게 번창하였다 한다. 원로들의 회고에 의하면 역참(驛站)에 사용되었던 주춧돌 8개가 수십 년 전까지 있었다고 한다.



8. 인조대왕, 백발노인의 말대로 부왕의 능을 정하다

조선의 16대왕 인조(仁祖)가 생부 원종대왕의 능을 이장하려고 계양산 근처에 왔었다는 전설이 있다.

대왕은 한양의 왕궁을 떠날 때부터 평복차림을 하였으며 박지검이라는 지관 한 사람만을 대동하였다. 계양산 기슭을 돌아보며 명당을 찾았다. 그가 대왕인 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행색으로 보아 서울에서 사대부가 명당을 찾아 나선 것쯤으로만 여겼다.

인조대왕과 지관 박지검은 우연히 관을 짊어지고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처음에는 무심히 여겼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마침 대왕 일행이 볼 수 있는 곳에 땅을 파서 장례를 지내려 했다.

“이봐라, 지관. 저긴 험한 묘터가 아니냐?”

대왕의 말에 지관이 답했다.

“그렇습니다. 두 계곡의 물이 지하에서 합해지므로 좋지 않습니다. 물길이 관을 떠밀고 다닐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장례 지내는 곳으로 다가갔다.

대왕이 상주에게 은화 한 닢을 주며 말했다.

“여보시오, 상주.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부모 무덤을 좋지 않은 묘터에 쓰는 게 마음이 안됐소이다. 사정이 어려운 모양인데 이걸 받으시오.”

“매우 인자하신 양반님이시군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상주는 고개 숙여 감사하며 은화를 받았다.

지관이 말했다.

“여보시오. 아무리 묘지 터를 살 수 없어도 그렇지 왜 여기다 부모를 묻는단 말이요?”

상주가 대답했다.

“제가 풍수지리에 대해 뭘 압니까요 저희 이웃 마을에 못자리 잘 보는 노인이 있어 못자리를 물으니 여기가 천하 제일의 명당이라고 여기다 쓰라고 했습니다.”

지관이 막 관을 내린 무덤을 들여다보니 흙이 말라 있었다.

인조대왕이 말했다.

“신통한 일이오 도대체 그 신통한 노인이 어디 살고 있소?”

상주는 그 노인이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 대왕과 박지겸은 노인이 사는 집을 찾아갔다. 대문간 앞에 다다르니 백발노인이 명석 위에 앉아 나막신을 껌고 있었다.

대왕을 수행해온 지관 박지겸이 말했다.

“노인, 나는 한양에서 높은 분을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한 가난한 농부가 매우 험해 보이는 곳에 부모를 파묻는 것을 보았소이다. 왜 거기를 짚어 주었소이까?”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게 딱해서 거길 짚어 줬소이다. 거긴 오시(午時)에 하관하면 사시(巳時)에 돈을 얻는 금시발복(今時發福)의 명당이외다.”

대왕과 박지겸은 깜짝 놀랐다. 노인의 말대로 그 가난한 농부는 하관과 거의 동시에 대왕에게서 은화를 받았던 것이다.

박지겸이 물었다.

“노인께선 도통했으면서 왜 나막신을 껌으며 사시오?”

백발노인은 노인답지 않게 형형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라님의 나막신을 껌습니다. 그분은 곧 나를 보러 오실 것입니다. 나라님이 신은 신발이 불편해서 발이 부르트신 것 같아서 껌는 것입니다.”

정말 인조대왕은 나막신을 신고 있었고 그것이 발에 안 맞아 불편해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대왕이 수행해온 박지겸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박지겸이 소리쳤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전하를 배알하라. 전하께옵서 부왕의 묘터를 찾아

미행 중이시니라.”

백발노인은 허둥지둥 엎드리며 이마를 땅에 뒀다.

“전하, 이 미천한 늙은 놈을 용서하십시오소서. 전하이신 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사옵니다.”

대왕은 백발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미행에 나선 이유를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왕을 모실 명당터를 찾으라고 명하였다.

백발노인은 대왕을 북성산으로 모시고 갔다. 거기 서서 보니 과연 감탄할 만한 명당이였다.

“전하, 미천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이 가장 좋은 명당터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리 해 둘 일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서 말하라.”

대왕이 재촉했다.

“지하수의 물길을 바꿔야 합니다. 산아래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흙으로 능자리를 돋우십시오소서.”

“알겠노라. 내 그리 하겠노라.”

대왕은 그렇게 대답하고 부평 사또에게 자신이 미행중임을 알렸다. 부평 사또는 혼비백산해서 달려왔고 즉시 왕명을 받아 연못을 파고 거기서 나온 흙을 동산처럼 쌓아올렸다.

한달 후 부왕의 묘를 이장하려고 그 묘터를 봤다. 그러자 광중(曠中)에 물이 콰콰 솟아올랐다.

“이게 어찌된 일이나?”

대왕은 크게 노하였다.

고관들이 당황하여 명을 내렸다.

“전하를 능멸한 지관 박지겸을 어서 잡아들여 목을 베어라.”

박지겸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산을 넘어 도망쳤다. 그 때 반대편 산록(山麓)에 한달 전 능으로 모실 명당을 짚어준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이보시오, 노인. 나는 죽게 됐소이다. 노인이 짚어 준 자리가 물이 쿵쿵 솟아나니 전하께서 진노하셨소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연못이 너무 얇고 능지에 흙을 덜 돋우었기 때문이오. 내 지금 해결하리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은 자리를 힘을 주어 푹 찌르니 울퉁 물이 솟아나며 홍수 때처럼 쿵쿵 골짜기로 흘러내렸다.

“어서 가보시오.”

백발노인의 말을 따라 능자리에 가보니 광중의 물은 사라지고 없었다.

인조대왕은 안심하여 자신의 생부인 원종대왕과 어머니 인현왕후의 관을 묻고 장릉(章陵)이라 이름하였다.

백발노인이 지팡이로 짚었던 이 풍무리의 물은 영험이 좋은 약수가 되어 모든 병에 특효가 있었다. 특히 옷에 오른 사람이 찾아가 마시고 피부에 바르면 깨끗하게 나왔다.

부평의 관장은 풍무리의 물길에 아무래도 얽려되어 물줄기를 더듬어 아홉 군데에 우물을 파 장릉으로 갈지 모르는 물길을 잡았다. 그리하여 아홉 우물을 나타내는 ‘구우물’이 되고 그것이 음운변화하여 ‘곤우물’과 ‘구두물’이 되었다. 그 뒤 왕명을 받은 부평 부사가 백발노인을 찾아갔다. 집과 노인은 간 곳이 없고 초여름인데도 나무에 서리가 가득 내려 있었다. 그래서 그 곳을 ‘나무서리’라고 부르고 그것은 목상(木霜)으로 표기되어 오늘날 목상동의 지명이 되었다.

【보충】 장릉의 능지 선정과 인조의 잠행에 관한 이야기들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구술자와 채록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윗글은 장릉의 마지막 능참봉이었던 김봉흠(金鳳欽)의 손자인 김병학(金秉學) 선생의 구술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김선생은 조부로부터 능참봉들에게 구전되어온 이야기를 직접 들은 분이다.

생부의 능 자리를 찾기 위하여 인조가 정말 번복을 하여 왔는지는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기록이 없는 터라 확인할 수 없다.

9. 북잡이가 명당을 잡아준다

인조 5년 원종대왕을 장릉에 이장할 때였다. 산역에 수백 명이 동원되었는데 비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북잡이와 소리꾼이 불러 왔다. 그들은 부평의 북잡이 박씨와 김씨 성을 가진 명창이었다.

인자하신 우리 대왕님의 부왕님
이제 명당에 몸을 눕혀 긴 잠을 주무시네.

그들이 처량하게 요령을 울리며 묘 다지는 노래를 선창하면 산역에 나온 상두꾼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며 흠을 다졌다.

에헤라 달궁

상두꾼들은 흠을 무덤 위에 쌓고서 흠이 단단하게 다져지기까지 여러 차례 땅을 다지는데 이를 덜구 쪼는다고 했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흠을 다질 때 일제히 오른발을 앞으로 내며 두 손도 역시 앞으로 뻗어 손뼉을 치는데 짝을 맞추어 무용을 하듯이 동작을 취했다. 다진 발을 거두어 들였을 때는 옆 사람과 등을 대고 두 손을 높이 쳐들어 짝을 맞추었다.

이 때, 소리꾼이 아닌 고수의 입에서 이상한 선창이 흘러나왔다.

효성 높은 우리 대왕님의 부왕님
세 발만 더 위에 모셨으면 진짜 명당인 것을

하늘같이 높은 주상의 부왕을 모시는 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 하급관

리가 듣고 국장도감(國葬都監)에게 보고하였다.

국장도감은 추상같은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네놈이 뭘 안다고 주상 전하의 부왕님을 모시는 능터에서 잡소리를 하느냐?”

“죽을죄를 졌습니다. 방위가 안 맞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 나왔습니다.”

고수는 납작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

국장도감은 모든 역서(易書)를 통찰하는 천하의 지관이었던 터라 문득 사방을 둘러보다가 광중은 제대로 잡혔으나 봉분의 중심이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아, 네가 아니었으면 전하에게 큰 불충을 범할 뻔하였구나.”

국장도감은 즉시 봉분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해설】 장릉에 묻힌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 정원군으로 인빈 김씨의 소생이다. 선조 13년(1580)에 태어나 선조 37년(1604)에는 호성공신으로 봉해졌고 광해군 즉위 후 왕의 박해로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광해군 11년(1619)에 40세로 죽었다. 인조반정으로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대원군에 추상되었다가 인조 10년에 대왕으로 추존되었다.

첫 능지는 경기도 양주였다. 김포로 이장해온 뒤 왕과 왕비의 능을 나란히 두어 쌍릉을 이루었는데 봉분 아래로는 얇은 호석을 둘렀을 뿐 난간석은 생략되었다. 왕릉처럼 웅장하게 만들었으나 왕릉의 격식에서 한두 가지를 빼 것은 원종이 생전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뒷날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덩달아 왕으로 추존되었기 때문이다.

장릉의 정자각은 조선조형이고 전체배치는 전형적인 직선축형으로 참도의 중심축이 정자각의 중앙과 양릉의 가운데를 지난다. 수복방과 수라간이 아직 정자각 근처에 있고 참도가 다소 긴 것이 전형적인 전기 왕릉 배치형식으로 되었다.

10. 은을 우물에 감추고 찾지 못하다

계양산 북麓(北麓)을 끼고 발달한 검암동 동쪽의 평지와 지금의 시천동 일부가 맞물린 곳에 옛날에 꽤 넓은 촌락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곳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 대륙으로 통하는 교통로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삼남지방에서 왕도인 개경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이 촌락을 바라피촌이라 불렀다. 이 곳에서는 발아장(發阿場)이라는 저자가 서고, 구슬원(球瑟院)이라는 여각촌이 있고, 구슬역이라는 역참(驛站)이 있었다고 전한다. 마을 앞쪽에는 발아현(發阿峴)이라는 고개가 있었고 고개 아래에는 큰 우물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구씨(具氏)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재산은 많지만 인색한 사람이었다.

“주인어른, 거지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는데요.”

하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는 하인을 야단치고 거지에게 찬물을 끼얹어 쫓아보냈다.

그의 아내가,

“제발 좋은 일에 베푸세요. 재물을 저승까지 갖고 갈 겁니까?”

하고 말하면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가난한 자는 게으른 거야.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일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어.”

그의 구두쇠 노릇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도 가난한 집 식구들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나물이나 먹었다.

어느 해, 왜구가 서쪽 해안을 노략질하며 마을까지 쳐들어 왔다. 구씨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재물을 은으로 바꿔 벽 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는 의심이 많아 은을 숨긴 자리를 아내와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여보. 왜놈들은 닥치는 대로 죽인다잖아요. 어서 피하지 않고 뺏히세요.”

피하지 않고 주춤거리며 남편을 보고 아내가 말했다.

“응. 당신이 먼저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요. 나는 할 일이 있어요. 어서 어서 피하지 않고 뺏히세요?”

촌각을 다투는 때라 그의 가족들은 가장을 남겨둔 채 허둥지둥 떠나며 하인에게 말했다.

“돌쇠야. 네가 어르신을 모시고 따라오너라.”

돌쇠가 남아 있으려 하자 주인은 그의 등을 밀어 쫓아 보냈다.

“어서 가거라, 이놈아. 나는 피할 궁리가 있느니라.”

돌쇠가 몸을 피하자 부자 구씨는 은을 넣은 자루를 끙끙대며 짊어지고 나와 큰 우물에 던져 넣었다. 왜구가 지붕에 불을 지르고 분탕질을 하는데 그는 목숨보다 아까운 재물을 그렇게 감추고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기는데 성공했다.

왜구가 물러간 뒤에, 부자 구씨는 큰 우물의 물을 모두 퍼내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왜놈들이 온 마을을 분탕질하고 떠나 사람들이 여럿 죽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우물을 청소한다니요?”

마을 사람들이 따졌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나보다 여겨 그대로 두었다.

한나절 물을 퍼내자 우물 바닥이 드러났다. 부자 구씨는 우물 바닥에 있는 하인에게 소리쳤다.

“바닥에 아무것도 없느냐?”

“네. 손가락 하나 없습디다요.”

그러자 부자 구씨는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은화를 모두 잃어버렸으니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더니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마을을 뛰어다녔다.

“내 은화 보따리 우물에서 본 사람 있어요? 내 은화 본 사람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천하의 구두쇠인 그가 재산을 은으로 바꿔 우물에 묻었다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한 표정을 했다.

“왜 우물에 묻었소이까? 아무리 무거워도 등짐을 지고 달리지 않고서 말이오.”

그는 사또를 만나러 관아로 가려 했다. 자신의 은화를 훔친 자를 잡아달라고 할 참이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만류했다.

“여보, 가지 마세요. 사또는 왜놈들의 노략질을 막지 못하는데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 목숨이 간당간당한 처지인데 무슨 고발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은화는 그냥 왜놈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는 기어이 관아로 가서 사또를 만났다.

사또는 왜구의 침략을 수습하느라 골치가 아파 이마에 두 손을 짚고 앉아 있었다. 아전이 그가 찾아왔음을 알리자 사또는 눈썹을 꿈틀하며 눈을 부릅떴다.

“너는 바라되춘 구부자가 아니냐? 이 사또에게 명절날 술 한 병 안 보내는 자가 웬일인가?”

그는 사또를 우러르며 말했다.

“제 은화를 찾아주십시오.”

“천둥에 개 뛰어들 듯 갑자기 와서 무슨 은화를 찾아달란 말이나?”

구씨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사또는 입맛을 썉썉 다셨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은화로만 천이백 량이옵니다.”

“뭇이? 천이백 량이라고?”

사또는 왜구에게 붙잡혀서 노략질한 물건을 해안의 배까지 실어 나르고

노예로 끌려가다가 간신히 탈출한 청년을 불러들여 은화에 대해 물었다.

“너는 왜놈들이 은화 보따리를 가진 걸 보았느냐?”

“사또, 왜놈들의 노략질 짐 속에 그런 무거운 돈 자루는 없었습니다
요.”

구씨는 사또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갔다.

“그거 보십시오.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놈을 잡아주십시오.”

이 말은 참고 있던 사또를 성나게 했다.

“이놈아, 네놈이 돈을 거기 감추는 걸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네 아내와 아들도 모른다는데 무슨 증거로 분실물이라고 하느냐? 저놈은 공무로 바쁜 관아에 와서 생떼를 부리는 놈이다.”

사또는 아전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을 공무를 방해하는 죄로 곤장을 스무 대만 때려 내쫓아라.”

“알겠습니다, 나오리.”

아전들이 구씨를 엮어놓고 매질을 했다.

“아이쿠 아이쿠.”

비명을 올리며 매를 맞은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 관아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는 급히 달려온 아들에게 업혀 집으로 가면서도 “내 돈을 어디서 찾나, 어디서 찾나.”하며 탄식하였다.

그 뒤 바라피촌의 그 우물은 은우물 또는 은지(銀池)로 불렸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바라피촌의 인구가 줄고 우물마저 없어졌지만 그 곳을 여전히 은우물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칠십이 넘는 마을의 원로들은 그곳을 은우물골이라고 부른다.

11. 여각에 팔린 누이를 찾다

검단동과 김포시 양촌면의 경계에 있는 산을 가현산(歌鉉山)이라 부른다. 노래를 부르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 곳에 구전되어 온 전설과 무관하지 않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가현산 밑 현재의 대곡동에는 광인원(廣因院)이라는 여각촌(旅閣村)이 있었다. 신라 수도 서라벌에서 육로로 중국 대륙을 향해 가거나, 고려 때 삼남지방에서 왕도인 개경(開京.현재의 개성)으로 갈 때 나그네들이 묵었다.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에서 개성으로 가거나 평양으로 가는 손님들이 묵었다. 관리들도 이 곳을 거쳤고 작은 역참(驛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인원은 북쪽으로 하성 조강원과 갑곶 통진원, 남쪽으로 오늘의 시천동 구슬원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부평의 오류원, 한강 마포의 양화원, 시흥의 대야원과 관음원, 서울 오류의 온산원, 인천 미라원, 제물원에 연결되었다. 먼 길을 가는 관리와 나그네들은 대개 이들 여각촌을 거쳐 이동하였다.

고려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여인이 열두 살 된 아들과 열 살 된 딸을 데리고 해질 무렵에 광인원으로 들어섰다. 때는 늦가을이고 추수 때인지라 이 여각촌에는 사람이 많았다. 아홉 개나 되는 여사(旅舍)는 모두 불을 밝히고 있었고 중앙의 작은 공터에서는 악사들이 비파를 뜯으며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패 중에는 소년과 소녀들도 보였다.

이십 리 남쪽 장모루에 있는 구슬원이 광대의 줄타기나, 야바위꾼의 빠른 손으로 눈 속이기를 하는 놀이로써 흥청대는 분위기를 만들어 손님을 끄는데 비해 이 곳은 조용히 음악을 연주해 손님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여인은 왕도인 개경에서 살았는데 벼슬살이를 하던 남편이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녀는 평민으로 변장하고 경기도 남양으로 가는 길이었다. 친정이 그 곳이어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숨어 살 작정이었다.

개경에서 수색대가 따라오고 각 역참이나 여각촌에 인상착의를 그린 방(榜)을 붙인 터라 광인원으로 들어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어머님, 지금까지 여각촌에는 한 번도 안 들렀는데 오늘은 왜 이 곳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들이 물었다.

여인은 조용히 속삭이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네 누이가 고열이 심해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서다.”

세 식구는 이 곳에 있는 여러 개의 여사 중에 앞뜰에 큰 팽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에 여장을 풀었다. 여인은 옛날에 남편과 함께 이 집에 묵은 적이 있었다.

“네 누이 때문에 큰일이구나. 어디 가서 칩뿌리나 산수유 열매를 구하면 될 텐데 어찌면 좋으냐?”

여인이 딸의 이마를 짚어보며 슬픈 얼굴을 했다.

아들이 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허리띠를 단단히 맸다.

“어머님,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아들을 붙잡았다.

“충명한 내 아들이, 내 말을 잘 듣거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숨어라. 아버지 한을 풀어 드리고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내 말을 알았느냐?”

아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머리를 끄덕였다.

소년은 여사를 나와 악사들이 있는 공터로 갔다. 햇불이 여러 개 밝혀진 가운데 그 또래 된 소년 소녀 노래패들이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소년은 재빨리 어둠 속에 세워진 마차로 가서 감시원의 눈을 피해 알록달록한 아동복을 훔쳤다. 소년 노래패가 연희(演戲)를 하면서 갈아입는 옷이었다.

소년은 노래패 소년의 차림으로 의원을 찾아갔다.

“너는 오늘 개경에서 온 노래패로구나.”

의원이 말했다.

“네. 제 동무가 열이 높아서 약을 사러 왔습니다. 산수유 열매나 갈근을 주실 수 있는지요.”

소년은 여각촌과 저자를 막 굴러다니는 노래패 소년들의 어투를 흉내내며 구리 주화 한 닢을 내밀었다.

“고놈, 새끼 약사 치고는 푹푹하네. 그래, 그것도 주고 양귀비 진액도 조금 줄 테니 산수유가 안 들으면 쓰거라.”

약을 구해 여사로 돌아온 소년은 문으로 들어서려다가 담벼락에 몸을 찰싹 붙였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자들이 어머니와 누이를 끌고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어디 있느냐?”

칼 찬 자들이 욱박지르자 소년의 어머니가 큰소리로 외쳤다.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조금 전 따로 길을 가라고 보냈다.”

“이년이 크게 악을 써서 말하는 건 아들놈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다. 너희는 어서 아이놈을 잡아라.”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명령했다. 그러자 수하 둘이 여사 주인에게 요구해 햇불을 만들어 켜들었다. 여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내 아들이, 어미가 당부한 걸 잊지 말아라.”

소년은 보았다. 어머니가 갑자기 칼 찬 자의 손아귀에서 한쪽 손을 빼고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가슴에 박는 것을. 소년은 옆집 지붕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칼을 찬 자들이 어린 누이를 여사 주인에게 팔아버리는 광경까지도 소리 죽여 울면서 지켜보았다.

그로부터 반 년 뒤에 소년은 밤에 몰래 와서 누이를 만나고 갔다. 누이는 비파를 배워 손님들 앞에서 연주하며 노래하는 처녀 노래패가 되어 있었다.

“내가 돈을 벌어 너를 데리러 오마. 힘들어도 참아라.”

오빠의 말에 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세상 어느 곳에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안이 돼. 참 으면서 그 날을 기다릴게.”

오빠는 삼 년 뒤에 돈을 벌어서 갖고 찾아왔다. 몇 년 전에 죽은 죄인의 아들을 나라에서는 더 찾지 않는 터라 오누이는 대낮에 만났다. 그리고 가현산에 아무렇게나 묻은 어머니의 묘도 돌아보았다. 그러나 누이의 몸값이 문제였다. 그동안 비파 연주와 노래 솜씨가 많이 늘었고 제법 처녀 티가 나서 몸값이 몇 배가 된 것이었다.

“스무 냥 갖고는 안 된다. 누이를 찾으려면 백 냥을 가져 오너라.”

주인의 말에 오누이는 다시 헤어졌다. 그리고 두 해 뒤에 다시 만났다.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몸값이 3백 냥이 되었던 것이다.

절망하여 울면서 길을 떠난 오빠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다. 어느 해 여름 과천 관악산의 어느 초막에서 잠을 잤다.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 꾸짖었다.

“산 아래 흰 바위 골짜기에서 네 누이가 울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침에 꿈에서 깬 오빠는 꿈이 마치 현실처럼 선연해서 흰 바위 골짜기를 찾아 내려갔다. 그는 홍수에 파여 내려간 절개지에 인절미 만한 누런 돌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뽑았다. 그것은 황금이였다.

오빠는 저자에 내려가 황금덩이를 돈으로 바꿔 다시 가현산 광인원으로 왔다.

“누이를 찾으러 왔소이다.”

영악한 여각 주인은 5백 냥을 불렀다.

“재작년까지 백오십 냥을 냈으니 3백오십 냥을 더 내야 하네.”

오빠는 거뜬하게 그것을 다 내놓았다.

오빠는 자유의 몸이 된 누이를 데리고 어머니 묘를 곱게 단장했다. 그는 돈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을 사서 부릴 수 있었다.

어머니 묘를 떠나며 누이가 말했다.

“내가 여각에서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비파를 뜯으며 살아온 건 어머니에게서 받은 재능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비파를 잘 뜯었잖아요.”

그러고 그녀는 비파를 들어 간절한 사모곡을 불렀다.

그 뒤 몇 해 동안 오누이는 광인원 뒷산 어머니 묘지에 찾아 왔다. 그 때마다 딸은 비파를 뜯으며 노래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그들의 발길은 끊어졌고 어머니의 묘도 저절로 없어졌다.

악사와 노래패와 여각들이 있었던 광인원은 가현산 서쪽에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고갯길을 닦으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광인원을 거치지 않고 십리 이상 길을 단축하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원현 사거리가 왕도인 한양으로 가기에 편리한 이점이 있어서 새로운 교통요지로 떠올랐다. 그래서 새로운 여각이 거기 만들어졌고 광인원도 그 곳으로 옮겨갔다.

그 때 가현산에 새로 만든 고갯길을 ‘새로너미 고개’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음운이 변화하여 오늘날처럼 스프너미 고개가 되었다.

【해설】 가현산은 검단 지역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이다. 그러나 산세는 험하지 않아 해발 215m이다. 현재의 국립지리원 지도를 포함하여 모든 공식지도가 이 산을 한자로 가현(歌鉉)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중종 때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옛날의 문헌자료는 가현(歌絃)으로 적었다. 그리고 일제가 1916년에 전국을 측량하면서 만든 지도는 가현(歌絃)으로 적혀 있다. 이것은 현악기 비파를 나타내는 현(絃)자이므로 전설을 떠올리면 큰 오류는 아닌데 아마 그 후 일제치하나 광복 후에 누군가가 부주의하여 잘못 적은 듯하다.

현재의 한자 지명 가현(歌鉉)은 원래 이름 그대로 가현(歌絃)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12. 두밀의 은행나무

두밀 분틀메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오래 된 은행나무가 있다. 옛날에 늙은 스님 하나가 이 마을에 들렀다. 그는 그냥 이곳을 스쳐 가는 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설법을 요청했다.

“스님, 이왕 오셨으니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비록 어느 절에 있는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가 깊은 수련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스님임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노스님은 겸손하게 웃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승려일 뿐이오”

“그러지 말고 아무 말씀이라도 좋으니 해 주십시오”

살림이 좀 나은 사람이 스님을 뒷마루에 앉히고 점심을 대접했다. 스님은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여러분은 착한 분들이군요. 그럼 내가 몇 마디 하지요”

사람들이 명석을 펴고 뒷마루 아래 모여 앉아서 노스님을 우러러보고 있었는데 노스님은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앉았다. 자신이 대중들보다 지체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느꼈다.

“스님, 해탈이 무엇입니까?”하고 집주인이 물었다.

노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렀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자기가 지은 행위의 업력(業力)에 따라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갖지요. 그러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되풀이하지요”

“그게 윤회입니까?”

“그렇소이다. 윤회는 흘러감입니다.”

“저는 소나 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요. 윤회를 피할 순 없나요?”

“피할 순 없지만 벗어날 순 있지요. 그게 해탈입니다.”

“피하는 거하고 벗어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스님은 나무관세음보살을 외며 다시 염주를 굴렀다.

“인간이란 진정한 가치의 삶을 무분별의 지혜로 바꾸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교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교만을 능히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윤회에 머물 수도 해탈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윤회의 육도(六道)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도가 무엇입니까?”

“윤회의 여섯 가지 길, 즉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 천 이렇게 여섯입니다.”

노스님은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법을 하고 일어섰다.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책 줄이나 읽은 뒷마루의 주인밖에 없었다.

“스님, 우리 마을은 흙이 걸어서 농사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물이 적어서 밭을 논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이한 기적을 내려 주십시오.”

무지렁이 농부 중의 하나가 말했다.

스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보기에 이 마을은 천하의 명당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이 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좋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지요. 이곳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이니까.”

그러더니 수십 보를 걸어가 마을 가운데에 짚고 온 지팡이를 꽂았다. 땅 표면은 메말라있었으나 지팡이는 젖은 땅에 꽂을 때처럼 쑥 들어갔다. 스님은 표연히 걸어 마을을 나갔다. 지팡이는 다음날 썩어 나더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커졌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 나무가 은행나무인 것을 알았다.

뒷날 근방에 이름을 날리던 풍수가 한 사람이 마을에 들렀다가 은행나무를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절묘한 자리에 심었군요. 이 나무 때문에 마을 전체가 명당이 될 것이요. 뿌리가 먼 곳의 물길을 당겨 물도 많아지고 곡식도 잘 열릴 것이요.”

그 뒤 두밀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13. 소염도의 각시당

옛날 소염도(小鹽島)에 중선배를 다섯 척이나 가진 부자 구씨(具氏)가 살았다. 그는 삼남지방에서 거둔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는 일을 맡아 돈을 많이 모았다.

악명 높은 안아지 고개의 도둑이 소문을 듣고 밤에 썰물을 타고 건너가 그의 집에 쳐들어갔다. 그 때 집에는 구씨와 아내와 열다섯 살 먹은 딸이 하인 두 사람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누구? 누구시오?”

목에 와 닿은 싸늘한 느낌에 잠을 깬 구씨는 눈을 두리번거렸다. 눈앞에서 칼날이 번쩍거렸다.

“우리는 안아지 고개의 도둑이다. 네놈이 부자인 것은 천하가 모두 아는 일이니 어서 내놓아라.”

그는 아내와 딸과 하인들과 대청에 끌려나가 무릎을 꿇었다.

“모든 걸 다 드릴 테니 식구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구씨는 손을 짹짹 비볐다.

도둑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값나가는 것을 모조리 자루에 담았다. 도둑 두목의 눈에 미색을 갖춘 구씨의 아내가 보였다.

“네 계집이 얼굴이 반반하구나. 네 놈이 관아에 고변하지 못하도록 네 계집을 데려 가겠다.”

구씨가 통사정을 했다.

“제발 아내를 두고 가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매달 버는 돈에서 얼마씩 바치겠습니다.”

“이놈아, 내가 네놈 잔피에 속을 것 같으냐.”

두목은 기어이 그의 아내를 끌고 갔다.

산채에 돌아가 며칠 지난 뒤 두목은 구씨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해 겁탈하려 했다.

“안 되요. 우리 집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 왔으면서 나까지 범한단 말이에요? 당신한테 몸을 더럽힌다면 내가 죽고 말 거예요.”

구씨 아내가 애걸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두목은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 순간 구씨 아내는 가슴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귀신이 되어 네놈을 괴롭힐 것이다.”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은 며칠이 지난 뒤 남편에게 알려졌다.

남편은 도둑들이 산골짜기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아내의 시체를 안고 통곡했다.

“여보, 내 잘못이요. 그놈들 협박 때문에 관아에 고변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요.”

그는 아내를 양지 바른 언덕에 장사지냈다.

구씨는 빼앗긴 재산은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가 죽은 슬픔과 회한과 억울함을 이길 수 없었다. 화병이 생겨 몸져누웠다.

딸이 정성스럽게 간호했다.

“아버지, 이 미음을 드시고 힘을 내세요. 어머니도 가셨는데 아버지마저 누우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 말이다. 너를 위해서도 내가 일어나야지.”

그는 딸이 내미는 미음을 먹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슬픔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을 시름시름 앓더니 저 세상으로 갔다.

이제 남은 것은 딸 하나였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딸은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사업을 추슬러 선주 노

릇을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자태가 아름다웠다. 다시 한 살 나이를 먹어 열일곱 살이 되자 물 오른 버들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다. 안아지 고개의 도둑들이 관아에 토벌되었으므로 그녀는 안심하고 선주노릇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다른 도둑 떼가 쳐들어와 그녀의 재산을 분탕질했다.

구씨녀는 도둑들에게 말했다.

“재산은 다 가져가도 좋아요. 하지만 내 목숨은 살려 주세요. 당신들도 들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아지 도둑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부모님 삼년상을 치러야 해요.”

도둑 두목은 이미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에 욕정이 솟아 침을 삼키고 있었다.

“내 다 들었느니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나도 처녀 귀신이 나를 쫓아다니는 건 싫으니까.”

“그래서 어찌자는 거예요?”

“나한테 안겨 하룻밤을 지내자.”

그러자 구씨 처녀는 어머니처럼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목을 찌르고 말 테어요.”

도둑 두목은 꺾꺾 웃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은장도를 빼앗았다.

“이것아, 양탈하지 말고 고분고분 말을 들어라.”

칼을 빼앗긴 구씨 처녀는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다. 우악스런 도둑의 손이 옷을 헤치고 들어왔다.

“안돼요!”

그녀는 마지막 저항을 하다가 도둑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어이쿠!” 하며 도둑이 코를 움켜쥐고 주저앉는 사이 그녀는 몸을 빼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도둑 패거리들이 두목의 뒤를 이어 그녀를 범하려고 순서를 정해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달려나가자 코피가 터진 두목과 부하들이 한꺼번에 뒤쫓았다.

언덕을 달리고 오솔길을 달리던 그녀는 도둑들에게 붙잡히기 직전 바다를 향한 벼랑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뛰어 몸을 던졌다. 열일곱 살의 꽃다운 처녀는 한 송이 꽃처럼 꺾여 바닷가 암벽에 떨어져 숨이 끊어졌다.

날이 밝은 뒤 살아 남은 하인들을 통해 이 사실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수습했다.

“구씨가 착하게 살았건만 일가가 이렇게 불행하게 죽다니.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일세.”

“그렇네. 구씨 부부도 그렇지만 딸이 불쌍하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청춘에 죽어 처녀 귀신이 되었으니 참 안됐네.”

사람들은 그녀를 부모 곁에 장사지내고, 혼을 달래기 위해 그녀가 투신한 벼랑 위에 각시당을 지었다. 그리고 해마다 초가을이면 위령제를 지내 주었다.

각시당은 1970년대 초까지 있었으나 소염도가 울도와 함께 매립되고 육지화하면서 없어졌다. 그러나 그 처녀가 정절을 지킨 정신은 이 곳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로 아직도 살아있다.

14. 죄인의 관을 찾으려 연못을 말리다

검단 마전동의 사자봉 줄기가 남쪽으로 뻗어가 만든 봉우리를 장산(獐山)이라 한다. 노루 장(獐) 자를 쓰는데 전설 속에 그런 까닭이 있다.

양촌말 앞에 연못이 있고 그 뒤의 장산 기슭에 옛날에 안동김씨 묘가 있었다. 묘비가 장대하고 문인석이 서고 봉분도 컸으며 마을에 관리인을 두어 묘지는 늘 늠름한 위엄을 갖고 있었다. 아들 중에 높은 벼슬을 하는 이가 있어 그가 성묘를 오면 가마 행렬이 대단한 볼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붉은 철릭을 입은 금부의 장교가 나졸들을 데리고 말을 달려 나타났다.

“여기 안동김가의 묘가 있느냐?”

칼을 찬 장교가 말했다.

밭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농부는 산기슭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장교는 말고삐를 당기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가자. 묘를 파내는 일도 절차를 밟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없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의 죄수가 금부 사람들을 만나고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살아 있을 적에 무슨 죄를 졌는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한다네.”

“부관참시가 뭔데요?”

한 무식한 농부가 말하자 죄수가 설명했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한테 내리는 극형이지.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거는 거지.”

“쫓쫓,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시체 목을 자르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그러나 안동김씨 묘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묘를 파 내려 가는데 엄청나게 굵고 단단한 나무 뿌리가 막고 있었다. 날카로운 도끼로 찍어도 끄떡도 없었다.

“어허, 왜 나무 뿌리 하나 못 자른단 말이나? 그러면서도 나라의 녹(錄)을 먹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장교가 꾸짖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도끼고 곡괭이고 톱이고 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참만에 간신히 그것을 파내자 이번에는 딱딱한 흙이 한 층 나왔다.

“어찌된 일인가? 어찌하여 흙이 돌보다도 강하단 말인가? 특별히 굵은 나무 뿌리를 이 쪽으로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석판을 중간에 넣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금부의 장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명령을 집행해야 했다.

“옆에서 파고 들어가자. 두 길이 되든 열 길이 되든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라도 꺼내야지.”

금부 나졸들은 사방에서 파고 들어갔다. 그러나 관 근처에 오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나왔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닷새가 갔다.

“큰일이군. 이거 죽은 자의 관 하나 파 헤치러 왔다가 삭탈관직당하게 생겼네.”

금부 장교는 마음이 급했다.

그 때 마을 좌수가 풍수가 한 사람을 데려 왔다.

“저는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며 풍수를 보아주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근처를 지나가던 길에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들었지요.”

금부 장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떠돌이 풍수가를 채근했다.

“그래, 해결 방법이 있느냐?”

풍수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 봐야 소용없습니다. 관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허란 말이냐?”

풍수가가 답했다.

“노루가 많은 앞산에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말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말리려면 연못에 뜬 바가지를 뒤집어야합니다. 그러면 물이 마를 것이고 바닥에는 죽은 자가 용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금부의 장교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무슨 뜻인지 같은 이야기냐? 노루가 많은 앞산은 뭐고 바가지는 뭐냐? 그리고 연못 바닥에 용이 있다니?”

풍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모릅니다. 주역의 괘(卦)가 그렇게 일러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표연히 떠나가 버렸다.

그 때 좌수가 금부 장교에게 다가갔다.

“바로 저 산입니다. 흔히들 노루산 또는 장산이라 부릅지요. 물론 노루가 많기도 하지요.”

금부장교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여봐라. 어서 연못에 바가지가 떠 있나 살펴라.”

명을 받은 금부 나졸들이 금방 커다란 바가지를 찾아왔다.

“이게 등등 떠 있었습디다요.”

“그걸 다시 연못에 넣고 당장 얹어라.”

부하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금부 장교는 수문을 활짝 열고 그것도 부족해서 독 여기저기에 용두레를 걸어 놓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당장 물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닷새만에 바닥이 드러났다. 웅덩이처럼 남아 있는 가장 깊은 곳의 물을 퍼내자 관이 나타났다. 관이 산 속에서 미끄러지며 지하에서 움직여 연못 속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관 뚜껑에 용이 그려져 있을 뿐 용이 된 것은 아니었다.

금부장교는 안동김씨의 관을 물으로 올리고 뚜껑을 열었다. 시체가 하나도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

“미안하외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신이한 일이라 칼을 대기 두렵소이 다만 나는 왕명을 받은 신하일 뿐이니 어쩔 수 없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무거운 칼로 시체의 목을 잘랐다.

그가 용서를 빌었기 때문인지 더 이상 신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5. 연못 속에서 시조의 묘비를 찾다

마전동 가현산의 주봉에서 남쪽으로 뻗어간 활기가 또하나의 산봉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해발 170m의 사자봉이다. 이 봉우리를 작은가현산이라고도 한다.

이 곳은 옛날에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밭에서 김매기를 하던 중년의 부부가 나무 밑에서 점심 먹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샷갓을 쓴 젊은 나그네가 다가왔다. 손에는 꽃꽂한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등에는 괴나리봇짐을 메고 있었다.

“어디서 오시는 나그넨지 찬밥 한 덩이 같이 드시지요.”

농부가 말했다.

나그네는 천천히 걸어와 샷갓을 벗었다. 처음엔 옷차림으로 보아 지체가 그저 그런 사람 같았는데 샷갓 벗고 나타난 형용이 만만찮게 높은 신분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사양하지 않고 농부 아내와 조금 떨어져서 앉았는데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중년 농부 부부는 두 그릇 짜온 보리밥을 세 덩이로 나누어 하나를 나그네에게 내밀었다. 나그네는 몹시 배가 고파 보였으나 급하지 않게 천천히 먹었다. 시골에서 여간해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 참을성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았다.

“허허, 두 끼를 굶었는데 참 요기를 잘했소이다.”

나그네는 괴나리봇짐을 뒤적여 엽전 두 닢을 꺼내 조용히 밀어놓았다.

“이 정도면 밥값으로 되려는지?”

농부는 입이 벌어졌다.

“과분합니다요. 이 돈이면 여각에 가면 보리밥을 서른 그릇은 사먹을 수 있습죠.”

“인심과 정성이 고마워서 준 것이니 받아두시오.”

나그네는 냉수로 입을 헹구고 샷갓과 대지팡이를 들고 일어섰는데 농부는 알아차렸다. 그 지팡이 속에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을.

“어디로 가시는지요?”

농부가 물었다.

나그네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 시조님의 묘를 찾아다니는 길이외다. 혹시 부안임씨 외자 이름 춘(春)자 쓰시는 분묘를 본 적이 있나요?”

어부는 껌연쩍은 얼굴을 하고 머리를 긁었다.

“내가 근방에 묘가 몇 개 있다는 건 알지만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이랍니다요.”

“그럼 임자가 없는 묘, 후손들이 돌보지 않는 묘, 이 근방 사람들이 보살피지 않는 묘를 안다는 말이군요.”

농부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거야 알지요.”

“나하고 같이 가 줄 수 있소?”

“그러지요. 밭 김매기는 내일 해도 되니까.”

밥값으로 엽전을 넉넉하게 받은 터라 농부는 밭목에 매는 행전을 질끈 매고 나섰다.

두 사람은 사자봉은 물론 장산을 거쳐 가현산 산자락까지 샅샅이 뒤졌다. 해가 질 때까지 모두 돌아보았으나 나그네의 조상이며 유명한 학자라는 임춘의 묘는 없었다.

“족보에는 틀림없이 가현산 남쪽 사자봉에 묘를 쓰고 묘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없군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요.”

나그네는 집이 있는 개경(開京)으로 돌아가기 붓짐을 챙기며 말했다.

“내 이름은 임청(林淸)이고, 개경 남대문 앞 팽나무 있는 곳이 내 집이외다. 혹시 내 조상님의 묘비를 찾으시면 내 집으로 와주거나 사람을 보내주시

오. 내가 노자(路資)를 넉넉히 드리리다.”

나그네는 다음해 봄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말을 댄으며 세 사람의 일행을 거느린 터였다. 숲이 아직 무성하지 않은 때에 다시 찾아보려는 계산이었다. 그들 일행은 가현산 아래 광인원에 여장을 풀고 그 농부의 집에 다시 들렀다.

농부가 말했다.

“어떤 풍수가 한 사람이 비가 와서 우리 집에서 비를 긋고 갔지요. 혹시 나 해서 내가 임자(林字) 춘자(春字) 쓰는 지체 높은 분의 묘비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본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했지요.”

개경에서 온 임춘의 후손 임청이 말했다.

“그런데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 풍수가 묘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으니깐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어보았겠지요?”

“이름은 장명직이고 부평 안암산 서쪽 기슭 구슬원에 산다고 했소이다.”

“구슬원이면 여기서 삼십 리 떨어진 여각촌이군.”

임춘의 후손들은 말을 타고 달려갔다.

그들은 구슬원에서 풍수를 만났다.

풍수가 말했다.

“임춘 나오리의 묘비는 아마 가현산 아래 연못 속에 있을 것이외다.”

“왜 내 조상님의 묘비가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차근차근 말해 봐요.”

임춘의 후손들이 채근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남들의 풍수를 보아주며 살아왔지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위의 할아버지까지 말이에요. 임춘 나오리는 내 할아버지가 묘자리를 보아 드렸지요. 내가 어렸을 적에 풍수를 배울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가현산에 간 적이 있지요. 그 때 묘비 없는 묘

를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생전에 임춘 나으리를 미워하던 개경 사람이 와서 비석을 뽑아 연못에 넣었다고”

그렇게 말한 풍수가는 그들을 데리고 사자봉으로 가서 숲에 묻혀 겨우 형태만 남은 묘지를 찾아 주었다. 그들은 봉분 앞부분을 파들어 갔는데 거기서 청자 사발에 쓰여진 글을 보고 조상 임춘의 묘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인근 사람들 수백 명을 동원해 연못의 물을 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임춘의 묘비를 찾아냈다.

【보충】 전설의 주인공 임춘은 고려 의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산 예천임씨(醴泉林氏)의 시조다. 그는 명문거족의 출신이지만 무신의 난을 만나 가문 전체가 회를 입은 가운데 겨우 목숨을 보존하였다. 학문을 닦으며 벼슬에 오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이인로(李仁老)·오세재(吳世才) 등과 함께 시와 술로 마음을 달래며 생애를 보냈다. 한문과 당시(唐詩)에 능하였으나 그는 국문학사상 가전체(假傳體) 소설을 쓴 것으로 큰 발자취를 남겼다. 가전체 소설 <국순전>과 <공방전>은 당대의 비리를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전체 소설은 고려 때 생성된 것으로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의인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다루면서 날카로운 풍자로 비평하는 한문 표기 문학 형식이다. 예컨대 엽전이나 종이, 대나무 따위에 생명이나 인격을 주어 인간의 일을 풍자하는 것이다.

위에 수록한 가현산 전설은 임춘이 부안임씨의 시조인 것으로 구전되어 왔는데 한 국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그를 예천임씨의 시조라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두 임씨가 계통이 같거나 밀접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전설에서처럼 그의 묘가 가현산에 있었고 묘비가 연못에 버려졌다면 그것은 그의 생애로 더듬어 보건대 아마 무신의 난으로 인한 인생의 굴곡 때문에 생긴 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6. 새신랑이 호랑이에게 잡혀먹다

서곶과 검단 지역은 비록 서해에 닿아 있고 험준한 산악은 없으나 계양산과 천마산과 원적산이 한남정맥으로 이어져 조선후기에 호랑이가 이따금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소나 염소를 물어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을 해쳤다. 서곶 지역에 호환의 전설이 하나 있다.

대여섯 살에 부모를 잃은 고아 형제가 원적산 아래 지금의 석남동에서 외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이 16세 되던 해 결혼했는데, 외숙은 오막살이 초가집을 하나 지어 조카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형은 이름답고 착한 아내와 아우를 부양하기 위해 남의 집 암소를 맡아 키웠다. 그 소로 절반은 주인집 농사일을 거두고 절반은 남의 집 소품팔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첫 한 마리는 주인이 갖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소머슴이라고 했다.

초가을 어느 날이었다. 계양산 너머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소를 물고 간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벌벌 떨며 해진 뒤에 밤길에 나서지 않고 외진 산길을 가지 않으려 했다.

새신랑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호랑이에게 빼앗길까 봐 소를 끌고 풀이 있는 산기슭에 가지 못해 암소가 어제 하루를 굶은 터였다. 소가 자기 소유인 사람들은 소를 끌고 산에 갔다. 소와 사람이 함께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나도 소를 물고 가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새신랑은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

“안 되겠어. 내가 쇠풀을 베어 와야지.”

그가 낮과 지계를 챙기고 나서자 새색시가 걱정스런 얼굴을 했다.

“여보, 간밤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앞논 독에서 아무 풀이나 베어다 먹

이면 안돼요?”

새신랑은 어제 저녁에 소주인이 와서 소가 야위었다고 걱정하던 얼굴을 떠올렸다.

“걱정 말아요. 깊은 산에는 안 갈 테니.”

그는 아내를 그렇게 안심시켰다.

그는 쇠풀이 좋은 원적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좋은 풀을 베어 지계에 올리고 칠평쿨로 만들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산 전체가 울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라보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새신랑은 지계작대기와 낮을 끈아들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산중호걸 호랑이님, 나 죽는 건 서럽지 않으나 어린 아내와 아우가 있소이다. 나를 못 본 척하고 갈 수는 없지요?”

호랑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발을 멈췄으나 도저히 배가 고파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몸을 날려 덤벼들었다. 새신랑이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발길을 돌려 내 뛰기 시작했으나 소용없었다. 겨우 세 걸음을 달리고 그는 호랑이에게 물려 숨이 끊어졌다.

해가 저도 새신랑이 돌아오지 않자 새색시는 시외숙에게 알렸다.

“외삼촌님, 그 사람이 풀 베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외숙은 놀란 얼굴을 했다.

“호랑이가 출몰한다는데 왜 산에 갔단 말이나?”

“소를 굶길 수 없어서요.”

새색시가 울면서 대답했다.

외숙은 날이 밝자 관아에 고변한 뒤 마을 남자들과 함께 조카를 찾아 나섰다. 한나절을 찾은 끝에 낮과 지계를 찾고 다시 한 나절을 찾은 끝에 새신랑의 피 묻은 옷 조각을 발견하였다.

“새아기야, 어찌면 좋으냐. 네 남편이 호환을 당했구나.”
외숙은 옷자락을 보여주며 말했다.
새색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호환이 일어나자 부평부사는 포수들을 소집하는 방을 붙였다.

천하의 포수들은 이 글을 읽을지어다. 원적산에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아라. 본관은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여 임금님에게 충성하고자 현상금을 거노라.

호랑이를 잡는 포수에게 상급으로 천냥을 주겠노라. 호랑이 가족도 총을 명중시켜 쓰러뜨린 포수에게 주겠노라. 그밖에 천냥을 또 내놓겠노라. 이걸 나머지 포수들에게 도운 공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분배할 것이니라. 스스로 자신이 천하의 최고 포수라고 생각하는 호걸들이여, 어서 부평땅에 와서 호랑이를 잡아라.

부평부사의 포고를 보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포수들이 모였다. 그 가운데는 노랑 두건을 머리에 매고 달린다 하여 ‘노랑포수’라고 불리는 저 북방의 강계 포수들도 있었다.

닷새 뒤, 천마산 골짜기에서 총성이 울렸다.

“내가 호랑이를 잡았다. 나는 강계포수 강만수다. 내가 이 곳 부평 땅까지 와서, 사람을 해친 호랑이를 잡았노라.”

그는 호랑이 몸뚱이를 밟고 서서 소리쳤다.

강계포수에 의해 사살된 호랑이는 우마차에 실려 부평 관아로 갔다. 우마차 앞에는 강계포수가 늙름한 모습을 하고, 부평부사가 보낸 말을 타고 갔다. 그의 주변에는 함께 온 그의 동료들이 따라 걸었다.

부평부사는 약속한 상급을 주고 칭찬하였다.

“그대가 우리 임금님과 본관과 우리 고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상급과 함께 호랑이 가죽을 받은 포수는 의기양양하여 북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는 길에 원적산 아랫마을에 들러 줄지에 청상과부가 된 새색시에게 호랑이 가죽을 판 돈을 주고 위로했다.

【해설】 원적산(元續山)은 해발 표고가 165m에 이르는 작은 산이지만 가파른 편이다. 지금 서구와 부평구를 경계짓는 산으로서, 옛날부터 남으로는 장고개, 북으로는 안아지 고개를 안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애당초 이름은 '원적(怨積)'이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에 경인운하를 팔 적에 원통현의 바위 때문에 실패하고, 안아지 고개는 고개가 90개나 되어 역시 실패의 원인이 된 터라 원(怨)이 쌓여서 원적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산은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에 원적산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철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다. 1915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의 토지측량에 참가한 일본인 측량기사가, 천마산을 무심하게 철마산으로 잘못 기록하고, 원적산이 천마산의 지맥에 닿아 있어 이 산마저 철마산으로 기록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결과로 생긴 지명오류 중 가장 큰 것이 오늘날의 철마산 관통도로이다. 가좌 주공아파트 앞에서 시작해 고개를 넘어가서 명신여자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이다. 1969년에 시공하여 1972년에 준공된 이 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과 부평간의 거리를 16km에서 5km로 줄였다. 인천 서부권과 부평권을 연결해주는 것으로는 장고개가 더 가깝긴 했지만 미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자동차 도로로 확장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가정 삼거리까지 가서 안아지 고개를 타고 가거나, 주안동과 간석동을 거쳐 원통현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관통도로에 분명하게 잘못된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산 이름도 원적산으로 바꾸고, 고개 이름도 원적산 관통도로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17. 호랑이굴의 새끼 호랑이들

원적산과 연관되는 호랑이 이야기가 또 있는 것을 보면 거기 호랑이가 분명히 있었던 듯하다.

지금의 가정동 쪽 철마산 밑을 ‘산밑마을’ 또는 한자음으로 ‘산저동(山底洞)’이라 했는데, 거기 사는 아낙네들이 봄에 산나물을 뜯으러 나섰다가 원적산까지 갔다.

이 산에는 맛있는 산나물이 지천으로 많아서 음력 삼월부터 석 달 동안 여인네들이 쭉부쟁이와 두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날이 지남에 따라 원추리, 취나물, 고비, 홀잎나물 등을 뜯었다. 산중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참나물, 모시대, 잔대, 참취, 곰취, 단풍취 따위를 뜯을 수 있었다.

“나는 왜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하고 괜히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몰라.”

젊은 강화택이 말했다.

그러자 나이가 엇비슷한 아낙이 대답했다.

“나도 그래.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거든.”

그러자 몇 살 더 많은 인천택이 대꾸했다.

“이 여편네들이 봄을 타는군. 그래서 봄바람을 맞고 싶어서 나물 핑계 대고 나온 거군. 하긴 옛날부터 봄은 여인네들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정네들의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남정네들은 가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걸까요?”

강화택의 말에 나이 많은 여인이 다시 대답했다.

“그렇지.”

“그랬구나. 그래서 남편이 주막거리 얼굴 반반한 기생년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을 한 거로구나.”

여자들은 고살이나 우물가에서 나누지 못하는 말들을 실컷 하며 나물을 실컷 뜯어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일행에서 조금 떨어졌던 안산댁이 장벽처럼 막아선 집채만한 바위 앞에서 소리쳤다.

“이리들 와 봐요. 여기 원추리가 지천으로 많아요.”

여인네들은 모두 그 쪽으로 가서 원추리를 잔뜩 뜯었다.

“우리 낭군이 좋아하는 나물이 이렇게나 많네. 아이 좋아라.”

“원추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괜히 금슬 좋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지.”

여인들은 머리에 이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나물을 많이 뜯은 터라 대부분이 이제 산을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때 누군가가 말했다.

“여기 낮은 굴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런 굴이 있네. 아, 그런데 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려요. 귀여운 새끼들이예요.”

나물을 이고 가기 쉽게 큰 무명보자기에 싸서 묶고 있던 여인네들은 그 쪽으로 가서 목을 뽑고 들여다보았다.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작은 새끼들이 서로 뒤엉켜 자고 있었다.

“저건 호랑이 새끼야! 여긴 호랑이굴이라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뭐라구요?”

여인네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른 나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때 어흥 하고 산 전체가 울리도록 호랑이가 울었다. 수풀 사이로 황소 만한 호랑이 모습이 언뜻 보였다.

“아이구머니나! 사람 살려랴!”

여인네들은 간이 콩알만해져서 나물 보따리고 뭐고 치마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 내려갔다.

호랑이는 몇 번 더 위협하듯이 크게 포효하였으나 다행히도 여인네들을 잡아먹을 생각은 없는지 뒤를 쫓지 않았다.

마을 어귀로 내려와서 여인네들은 길바닥에 털썩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십 년 감수했네.”

“아이고, 나는 저승 문고리까지 잡아보고 온 기분이에요.”

그렇게들 말하며 살아 나온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강화택이 가우뚱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새끼를 가진 호랑이가 왜 우리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어미 호랑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안산택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중송아지 한 마리를 물고 있었어요. 중송아지를 물어오지 못했다면 나를 물어다 새끼들에게 줬을 거예요.”

이 때부터 호랑이가 무서워서 산밑마을은 물론 근방 마을 사람들은 산나물을 뜯지 못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들이 있었던 원적산의 바위를 범바위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8. 깨끔재의 영험한 샘물

서곶과 검단의 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썰물 때면 끝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드넓게 갯벌이 드러났다. 주로 부녀자들이 이 시간에 구렁과 호미를 메고 갯벌로 나가 낙지, 게, 소라, 조개, 맛조개 따위를 잡았다.

쭉대고잔(현재의 경서동)에서도 40~50명의 부녀자가 썰물 때면 떼를 지어 갯벌로 나갔다. 이 마을의 서쪽 끝의 작은 반도를 타고 나가면 빠른 시간에 갯벌가 운데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 오솔길에 나지막한 고개 하나가 있었다. 이 고개를 경서동 사람들은 지금도 '깨끔고개' 또는 '깨끔재' 라고 불렀다.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절름발이 소녀가 있었다. 천천히 걸을 때는 심하게 기우뚱거리며 걷고 급할 때는 한 발로만 땅을 딛고 뛰어가, '깨끔이'란 별명도 갖고 있었다. 천성이 착하고 예뻐서 사람들은 아까워하였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절름발이가 되다니 참으로 아깝네.”

“그러게 말일세. 절름발이가 아니라면 내 며느리로 삼고 싶네.”

절름발이 소녀는 어머니가 갯벌에 나갈 때마다 이 오솔길로 쫓아나가 어머니와 여인네들이 조개와 게를 잡은 구렁을 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여인네들은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을 걸어 나가 가물가물하더니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아마도 한식경이 지나 청라도 옆으로 밀물이 돌아나올 때쯤 잡은 것을 등에 메고 머리에 이고 서둘러 돌아올 것이었다.

어느 날, 소녀는 목이 말랐다. 절름거리며 사방을 살펴보다가 이 고개의 바로 아래 갯벌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육지의 지하수가 갯벌이 시작되는 곳에서 분출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거기 엎드려 물을 마셨다.

“아, 참 맛있고 달콤하네.”

물이 온몸을 적시고 나갈 때 소녀는 행복하여 눈을 감았다. 잠시 아득한 기분도 느꼈으며 자신의 몸에 그 기운이 퍼지는 것도 느꼈다.

소녀는 이 물을 매일 마셨다. 그냥 작은 샘물이라고만 여기는데다가, 어른들이 알면 아무것이나 마신다고 야단칠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녀는 먼 갯벌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맞으러 언덕 아래로 달려나갔다.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다.

“애, 어찌된 일이나? 네가 절름거리지 않고 단숨에 달려오다니?”

절름발이 딸을 낳아 늘 가슴에 한이 되었던 어머니는 딸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동네 여인네들도 놀란 얼굴을 하고 둘러쌌다.

“어찌된 일이나? 네가 무얼 먹었기에 불구된 다리가 나았느냐?”

어머니가 하도 세계 껴안았던지라 소녀는 숨을 몰아쉬며 활짝 웃었다.

“몰라요 저절로 나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거라, 무엇을 먹었나?”

소녀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 손으로 샘물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샘물을 매일 마셨어요.”

소녀 어머니와 여인네들은 그 쪽으로 달려갔다. 물이 끝나고 갯벌이 시작되는 곳에 모래 양금이 떠오르며 샘물이 퐁퐁 솟고 있었다.

한나절 동안 갯벌에서 일하느라 목이 말랐으므로 여인네들은 앞을 다투어 샘물을 마셨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은 처음 마셔 보네.”

“몸이 하늘로 붕 뜨는 기분이에요. 좋은 약수가 분명해요.”

사람들은 소녀의 절름발이 다리가 약수 때문에 나은 것이라고는 아직 믿지 않았다. 그냥 갯벌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몹시 목이 말랐고 그 샘물이 시원하므로 습관적으로 매일 마셨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갯벌에 나가는 여인네들 중 심한 천식 증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며칠만에 깨끗하게 나은 것이었다.

“깨끗이가 찾아낸 샘물 때문이에요. 난 알아요. 내 몸이 알고 있다고요. 그 샘물이 내 병을 고친 거라구요.”

그 여인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집안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데리고 나와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어떤 연유에선지 그 물은 물통에 길어다 마시면 효험이 없고 현장에 가서 옆드려 마셔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환자를 손수레에 싣고 지게에 지고 그 곳까지 데려와 물을 마시게 했다.

경서동 사람들은 마을에 환자가 생기면 이 물을 길어다 마시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그리고 이 샘물을 '원전물'이라고 불렀다.

다리를 절던 소녀 깨끔이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처녀로 성장하여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였다. 그녀는 시집가는 날 아침, 그 샘물에 가서 옆드려 물을 마셨다.

“은혜로운 샘물아, 잘 있거라. 나는 좋은 신랑을 만나 시집 간단다.”

작은 샘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퐁퐁 물을 뿜어 올렸다.

처녀가 시집간 뒤에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깨끔고개' 또는 '깨끔재'라 불렀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 샘물을 찾은 것이 천성이 착하여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하였다.

경서동 사람들은 오랜 세월 그 물을 마셨다. 그래서 그런지 장수하는 노인들이 유독 많았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도회에 나가 생존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그 곳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갔다.

【보충】 깨끔재의 샘물은 1970년대까지 물을 뿜고 있었다. 필자도 어린 시절 그곳에 사는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경서동 해안에 낚시질을 가면 그 샘물을 마셨다. 그 샘물은 서곶 해안에 도시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경서동 앞바다 전체가 매립되면서 사라졌다. 동아건설주식회사가 서곶 앞바다 대부분을 매립하는 청라 매립지(‘서북부 매립지’ 또는 ‘동아 매립지’라고도 한다) 공사에 착수한 것은 1980년 1월이었다.

샘물이 사라진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경서동 토박이들은 그 깨끔재의 물맛과 아름답고 정겨운 전설을 회고하며 아쉬워한다.

19. 도자기 배가 수렁에 빠지다

경서동에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좋은 흙이 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가마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경서동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녹청자 도요지(사적 제211호)가 있다. 그리고 경서동 해안에서 서쪽으로 국도까지 이어진 길 좌우에는 30전까지만 해도 옹기를 굽는 가마가 십여 개 있었다.

옛날에 쭉대고잔 마을 앞 포구에서 도자기를 실은 배가 떠나곤 했다. 질 좋은 그릇을 전국의 저자에 내다 팔려고 상인들이 실어 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 곳의 도자기를 팔아 돈을 많이 모은 수집상이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릇들을 배에 가득 실었다. 그는 선장인 도사공에게 말했다.

“도사공, 어서 출발하십시오.”

도사공은 햇무리가 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요. 한 나절만 기다리시지요.”

“무슨 말이요? 나는 이 그릇들을 강경과 완주 저자에 늘어놓고 팔아야 한단 말이요. 그러려면 여유가 없어요.”

도사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배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바다로 조금 나아갔을 때 너무 많이 실은데다가 갑자기 무풍 상태가 되어 배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노를 저어 배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포구로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흐르자 썰물이 시작되었다.

“이거 좌초되겠군.”

도사공은 갯벌 둔덕에 배가 얽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공들을 독려해 급히 배를 조금 움직이게 했다. 갯벌 사이에 나 있는 통로나 다름없는 갯골에 배를 대는데 성공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배를 몰아 썰물을 따라 나가려

고 했다.

배는 이삼백 보쯤 움직였으나 썰물이 끝나면서 갯골 바닥에 얽혀졌다.

수집상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성을 냈지만 도사공은 고개를 저었다.

“화주(貨主)인 당신이 욕심이 나서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이오. 내가 지금 어림잡아 헤아려 보니 내 눈을 속이고 거의 두 배나 실었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다시 뜰 테니까.”

하지만 배는 경험 많은 도사공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배가 서서히 곤죽이나 다름없는 갯골의 진흙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었다.

“도사공님, 큰일났습니다. 배가 빨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한 사공의 말에 도사공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갑판에 허리를 꺾고 배 밑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배가 정말 가라앉고 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물에서 가까운 곳인데 깊은 수렁이 있다니!”

도사공은 탄식하였다.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있었지만 절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였다. 수렁이 깊다고 해야 한 길 높이가 넘으랴,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그는 수하 사공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샷대를 가져와라.”

그는 사공들과 함께 대나무 장대를 갯골에 찢러보았다. 두 길이 넘는 장대가 힘없이 빨려 들어갔다.

“다른 장대를 끝에 이어 계속 찢러 보라.”

사공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도사공님, 장대 두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도사공은 사색이 되었다. 갯골 바닥 깊은 곳에 침출수가 있어 곤죽 수렁이 된 곳에 배가 얽힌 것이었다.

“배를 구해야겠다. 도자기를 내버려라.”

도사공의 명령에 따라 사공들은 값비싼 도자기들을 닥치는 대로 갯벌 위로 던졌다. 욕심 많은 화주는 갑판 위에 앉아 엉엉 울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의 눈으로도 배가 이미 절반 가량 진흙 속으로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다.

“내 도자기, 내 도자기, 이걸 어떡하나!”

그는 울부짖었으나 배는 계속 가라앉았다.

결국 사공들과 화주는 갯골의 빨흙이 선체 전부를 삼키고 갑판까지 삼키기 직전 갑판의 문짝과 판때기들을 뜯어내 빨흙을 타고 나옴으로써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조수가 나간 갯벌 둔덕에 서서 배가 돛대끝까지 수렁에 잠기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보아야만 했다.

수천 개의 도자기와 중선배를 한꺼번에 삼킨 갯골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도 없이 고요해졌다.

도사공이 자기 팔을 꼬집어보며 말했다.

“사공 생활 삼십 년을 바쳐 마련한 배가 사라졌으니 나는 망했어.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갯벌이 배를 삼킨단 말인가. 꿈만 같아.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멀리서 밀물이 갯벌을 하얗게 덮으며 밀려오고 있었다.

알거지가 된 화주와 도사공, 그리고 사공들은 하릴없이 그 자리를 떠나 빈손으로 해안을 향해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정말 믿을 수 없어 엉엉 울고 있었다.

그 뒤에 썩대고잔 사람들은 가끔 값비싼 도자기를 찾는다고 배를 삼킨 그 갯골 근처에 갔다. 더러 그릇을 주운 사람도 있었지만 못 주운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전설은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로 구전되어 왔다. 경서동과 부근 마을에 사는 호사가들은 삼사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였다.

“수렁을 파헤치면 중선배와 값비싼 도자기들을 그대로 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일부 모험심 강한 청년들은 커다란 판때기를 배처럼 타고 밀면서 그 수렁에 다가갔다. 옛날에 도사공이 그랬던 것처럼 장대를 찢러 넣어 깊이를 재보았으나 얼마나 깊은지 측정을 할 수가 없었다.

【해설】 위의 전설을 되짚어 보면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와 관련된 생각하게 된다. 가마 규모가 컸으므로 통일신라 때나 고려 때 많은 도자기들이 중국이나 서울로 실려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서동 산 146번지의 녹청자 도요지는 1965년에서 1966년까지 4차에 걸쳐 인천시립박물관 발굴팀에 의해 발굴되었다. <두산대백과사전>은 이 유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가마는 지면을 약간 파고 묻어 밑부분은 지하에 있으며, 그 위에 돛형의 벽과 천장을 쌓아올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지하의 밑부분과 지상의 벽 일부가 약간 남아 있다. 가마는 자연경사를 이용한 3~4° 경사의 형태로서, 내부는 칸이 없는 통가마이다. 평면은 아궁이와 가마 사이가 약간 좁고 길며, 아궁이와 가마의 폭은 평균 1.2m, 아궁이와 가마 사이의 폭은 1.05m이다. 지금 남은 가마의 길이는 7.3m로 가마의 머리부분은 도로가 나서 이미 파괴되었으며, 가마의 모습을 살피면 세 차례에 걸쳐 보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가마에서 구워 만든 것은 녹청자로, 바탕 흙에는 잡물과 공기 구멍이 많으며 녹갈색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하다. 표면이 거친 초기의 청자이다. 출토되는 그릇의 형태는 대접, 접시, 항아리, 병 등으로 다양했고 점토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4~5개소에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제작 시기는 도자기의 모습과 굽처리 형태로 보아 고려 초기인 10~11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0. 신관 사또가 처녀의 원혼을 풀다

검단 사거리의 옛 이름은 원현(院峴)이다. 그 곳은 역참(驛站)이 있었고 지난 날 지방 관장이나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반드시 하루를 묵고 가는 곳이었다고 전한다.

어느 해 새로 부임해 오는 신관 사또가 이 곳에서 묵었다. 밤에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몽롱하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기분이 으슬으슬하고 이상하여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번쩍 눈을 뜨니 소복을 한 처녀가 쌍바라지문을 조용히 밀면서 들어서는 것이었다.

“누, 누구냐? 사람이면 대답하고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그는 머리맡에 놓았던 장검을 집어들었다.

“사또, 놀라지 마옵소서. 소녀는 억울하게 죽은 혼이옵니다. 부디 저의 원혼을 풀어주옵소서.”

웬만큼 심장이 강하지 않으면 기절할 상황이었지만 관장은 대범하게 처녀를 맞았다.

“그래, 말해 보아라.”

처녀는 다소곳이 그의 앞에 와서 앉았다. 촛불을 받은 얼굴이 귀신답지 않게 아름답고 몸매도 고왔다.

“소녀는 이 고을의 기생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정절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어 이 객사의 앞뜰에 암매장되어 있사옵니다. 부디 양지 바른 곳에 이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복의 처녀는 그렇게 말하고 큰절을 올린 뒤 물러갔다.

“잠깐, 너를 죽여 암매장한 범인이 누구인가 말하여라.”

그는 소리쳤으나 소복 처녀는 문을 열고 나간 뒤였다.

퍼뜩 정신을 차린 사또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두리번거렸다. 정말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잠잘 적에 안으로 닫아걸었던 쌍바라지문의 문고리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 다녀갔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쌍바라지문은 바람을 받아 덜컹덜컹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벌컥 문을 열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는데 어디선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밤새가 슬프게 울고 있었다. 그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처녀는 걱정 마라. 내가 그대를 마른 땅에 이장해 주고 범인을 잡아 한을 풀어 주마.”

날이 밝자 그는 관아로 가서 부임했다. 전임 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인수하자마자 아전들을 이끌고 원현으로 갔다.

“우리 관내에서 근년에 죽거나 행방불명된 기생이 있느냐?”

이 고을 출신인 이방이 대답했다.

“사월이라는 기생이 작년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엄숙하게 명령했다.

“사월이의 부모를 당장 불러오너라.”

사월이의 부모는 득달같이 달려왔다.

사또가 아버지를 심문했다.

“네 딸이 언제 없어졌느냐?”

“작년 가을 어느 보름날이었습니다.”

“혹시 좋아하던 사내는 있었느냐?”

“정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전들에게 명령했다.

“그자를 데려 오너라.”

정혼자가 도착하는 순간, 사또는 그가 범인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눈이 선량해 보였으며 정혼녀를 잃은 슬픔에 눈물이 글썽했다.

“저는 사월이가 자꾸 꿈에 보여 제가 싫어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신관 사또는 형방(刑房) 사령에게 명령했다.

“사월이가 나가던 객줏집의 주인을 불러오너라.”

객줏집 주인을 심문한 그는 김가(金哥)라는 양반집 한량이 사월이를 품고 싶어 안달을 하며 괴롭힌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객사의 관리를 맡은 아전의 조카라는 것도 알아냈다.

사또는 형방 사령에게 명령하였다.

“그놈을 잡아 원현 객사 앞뜰로 압송하여라.”

그리고 나졸들에게 객사 앞뜰을 파게 하였다.

절반쯤 파고 나가자 처녀의 시신이 나왔다. 그 때 막 한량이 도착했고 그자는 두 다리를 덜덜 떨었다.

“이놈, 어서 네 죄를 이실직고하지 않고 뿔하느냐?”

신관 사또의 호통에 한량은 실토하였다.

“사월이를 사모하였습니다. 그 날 이 객사는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자태가 예뻐서 정육이 생겨 범하려 했지만 저항하여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신관 사또는 범인을 한양으로 압송하고 사월이의 시신을 메마르고 따듯한 언덕에 이장하게 했다. 그리고 조정에 품신하여 원현에 그녀의 정절을 기리는 정려(旌閭)를 세웠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킨 사월이를 찬양하는 원현 사거리의 이 정려는 구한말까지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조문(貞操門)’이라고 부르며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정절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그 정조문은 일제시대에 들어 없어졌다. 그러나 이 곳 토박이들은 객사가 있던 자리를 ‘원현 사거리’ 또는 ‘정조문 사거리’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

【해설】 한국설화의 한 전형인 신원(伸冤)설화가 인천의 서부지역에도 있는 것이 흥미롭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은 신원설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살아서 지냈던 원이나 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뒤 원혼이 되어 그 원이나 한을 다른 사람이 풀어준다는 설화이다.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발생한 한(恨) 같은 것을 풀려고 생존자에게 의탁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는 죽은 후 원령이 되어 생존자에게 나타나 원한을 풀어주기를 의탁하고,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비로소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전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설화로서 <장화홍련설화>라든가, 또는 밀양의 <아랑설화>를 들 수 있다. 비명횡사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고을 원에게 원한을 씻어달라며 영혼이 나타나는데, 고을 원은 이 엽기적인 유령의 출현에 기절하여 죽고 만다.

이런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그 고을 원을 자칭하는 자, 즉 담력이 세어 웬만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자에게까지 돌아온다. 그리하여 부임 첫날밤에 그 원혼을 만나 그 원한의 시말을 듣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 억울하게 비명횡사로 유명한 달리한 영혼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신원설화는 민속신앙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혼은 육체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사후에 남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분히 형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려 하며 따라서 비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도 상상되고 있다. 거기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에 대한 개념이 시체로부터 유리된 넋을 가외적인 것으로, 또는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죽은 넋을 존중하여 받드는 경우로 보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모두 뒤섞여 일종의 장례의식의 절차로까지 굳어지고 있으나, 신원의 경우 대체로 첫 번째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민간 신앙적 사고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가령 미혼자가 죽었고 그게 여성일 경우에 장례식 때 남복을 입혀서 보낸다는 등의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설화는 역시 영혼관에 있어 다분히 원시종교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까닭이며, 또한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나, 이 신원설화의 모티프의 소재는 우리 고문헌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그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역시 그 원한을 풀고자 하는 영혼들의 행동세계가 무제한하고 불가항력적인 절대성에 힘입고 있다는 점이다.’

21. 이무기가 사는 고목나무

오류동에 5백여 년 전 처음으로 고씨(高氏) 성을 가진 사람이 가솔을 이끌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이 온 것을 기념하여 회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참 좋은 동네로구나. 내 자손들이 여기 뿌리내리도록 이 나무를 심자.”

그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자손도 뿌리를 내렸다. 자손들은 입향조(入鄕祖)를 생각하며 나무에 수제(樹祭)를 지내고 받들어 모셨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성씨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고씨들처럼 회화나무를 우러러 보지 않았다. 수백 년이 지나며 나무는 등치가 굽어지고 마치 이무기의 몸통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속이 텅비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웅 우웅 하고 우는 소리가 회화나무 쪽에서 들려왔는데, 사람들은 이무기가 나무 속에 산다고 믿으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비내리는 날 고목 밑에 가지 마라. 나무가 갑자기 이무기로 변해 네 몸을 찢찢 감고 하늘로 치솟을지 모르니까.”

“이무기가 뭔데요?”

“용이 되려고 하다가 되지 못한 큰 뱀이란단다. 천 년을 기다려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고씨 가문은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화나무에 대해 일종의 외경감을 갖고 있었다. 나무에 그네를 매다는 일도 하지 않았고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기를 두는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여럿이 듣는 앞에서 말하였다.

“늙은 나무가 영험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일세. 어디들 보게. 내가 저 메말라 부러져 내린 가지를 가져다 멧돌 손잡이와 도리끼 아버를 만들고, 남은 잔가지는 뿔감으로 쓸 것이야.”

그 사람은 자기 말대로 했다. 그러나 며칠 후 동티가 났다. 온 식구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뱀껍질처럼 변하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

마을 노인들이 찾아가 말하였다.

“자네의 입방정 때문일세. 어서 식구들을 데리고 나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게.”

입이 가벼웠던 그 사람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울면서 절하였다.

“늙은 나무님, 늙은 나무님. 제가 어리석어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비오니 용서하시어 저와 식구들의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그 때 그들 일가와 더불어 외경스런 마음으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우우웅 하고 이무기가 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사죄하던 그들 일가는 물론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그 해부터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마을사람들 모두가 수제를 지냈다. 이무기의 보살핌 때문인지 그 마을은 큰비가 와도 홍수가 나지 않고 가뭄도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마치 도당제처럼 지내지던 그 수제는 약 50년 전에 사라졌다.

【보충】 오류동의 회화나무에 대한 제사는 근방의 여러 마을들, 마전동의 능안, 불로리, 가현, 여래리 및 백석동, 왕길동, 시천동, 연희동, 경서동, 검암동, 가정동에서 열렸던 도당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나무를 외경스러운 존재로 놓고 숭배한 것은 근년까지 시행되어온 연희동의 도당제와 유사하다.

22. 도당신의 노여움

인천 서부지역의 민속신앙의 대표적인 제의(祭儀)인 도당굿이 가정동에서도 해마다 열렸다.

가정동 사람들은 개경주 마을 뒷산 밑에 도당굿 제단을 만들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으며 일년 내내 이곳을 외경스럽게 여기고 여러 가지 금기를 지켰다.

제단이 큰길과 가까운지라 그 앞을 지날 때면 목소리도 낮추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음성을 낮추어라. 그리고 모자를 벗어라.”

술을 마신 사람들은 그 근처에 오면 정신을 차렸다.

“안 되지. 내가 취한 채로 도당굿 제단 앞을 지나선 안되지.”

그들은 장례 때도 상여를 통과시키지 않고 우회하여 갔다. 조선 후기에 어떤 신관 사또가 말을 타고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영접하여 수행하던 마을의 좌수(座首)가 아뢰었다.

“사또 나오리, 여긴 외경스런 곳이옵니다. 말에서 내리시옵소서.”

사또는 눈을 둥그렇게 떴다.

“왜 그러느냐? 여기 임금님의 할아버님이라도 앉아 계시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도당신의 제단이 앞에 있사옵니다.”

사또는 실증적인 것을 숭상하는 실학파의 한 사람으로 무속을 혹세무민하는 미신이라 여겨서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탄 채 발끝으로 제단 쪽을 가리켰다.

“무슨 말라 비틀어진 제단이란 말이냐? 나는 그냥 통과하겠노라.”

그는 “이랴!”하고 채찍을 때리며 말을 몰아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말은 히이잉 울며 용을 쓸 뿐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강력

한 자석이 붙은 것처럼 네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놈의 말이 이상하군. 이랏! 이랏!”

아무리 채찍을 휘둘러도 소용이 없었다.

“말이 안 움직이면 내 발로 걸어서 가겠노라.”

그는 말에서 내려 앞으로 걸어가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두 발이 얼어붙은 듯 땅에 붙어버렸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졌다.

좌수와 마을 원로들이 말하였다.

“제단 쪽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 번 하십시오.”

신관 사또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도당신이며,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감히 경망스런 언행을 했습니다. 저의 다리와 말의 다리를 풀어 주시면 제단에 정성을 다해 제물을 올리고 경배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거짓말처럼 발이 풀렸다.

신관 사또는 좌수에게 말하였다.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는 마을 도당신들을 노하게 하지 않겠네.”

그리고 그는 정성을 다해 제단에 제물을 차리고 절하였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도당굿 제단에 대한 더 큰 외경감을 갖게 되었다.

23. 경명현의 도둑 두목

옛날 부평 고을에 신관 사또가 부임해왔다. 관아에서 하루를 묵고 아침을 먹으려 할 때였다. 고을의 방범 경찰 업무를 맡은 병방(兵房)이 험레벌떡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나으리, 털렸습니다요.”

“이놈아, 뭐가 털렸다는 것이냐. 똑바로 말하거라.”

사또는 손가락을 놓으며 낮을 찌푸렸다.

“징맹이 고개에서 도둑떼가 행인의 짐을 털었습니다요.”

“뭇이랴구? 그 도둑놈들이 내가 부임한 첫날부터 털었던 말이나?”

사또는 발을 구르며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기가 막혔다. 부평부사로 제수되던 날, 그는 조정으로부터 다짐을 받은 터였다. 계양산 경명현의 도둑 떼를 말끔히 토벌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쯤 단단히 준비를 해서 토벌대를 이끌고 나서려던 참이었다.

“내 이놈들을 요절내고야 말겠노라.”

그는 아침 먹는 일도 거르고 여남은 명의 수행원과 함께 계양산으로 갔다.

이 산은 군도(群盜)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인천과 부평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산인데다, 수목이 무성하여 몸을 숨기기 쉬웠다. 그리고 산 아래로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부자들이 많고 빼앗을 것이 많았다.

계다가 산의 허리에 걸쳐진 경명현은 서울로 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충청과 호남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나 짐은 이 고개를 지나야 했다. 원창동의 환자곶 해안에 있는 정부 세곡창고에서 세곡을 서울로 싣고 가려 해도 마찬가지였다. 고개의 길이는 20리가 넘었다. 그러므로 도둑 떼가 자리잡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이 고개는 도적이 강하고 솟

자가 많아 일행이 천 명이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천명고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경명현의 도둑 두목은 키가 작고 날렵한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전임사또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토벌에 나섰지만 두목의 그림자 한 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또도 그렇지만 조정에서 걱정하는 것은 계양산 도둑 떼의 두목이 마치 의적(義賊)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었다. 고개에서 재물을 빼앗아서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조용히 가난한 집 담장 안에 던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도둑이 민심을 얻고 조정에서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것, 그것은 통치의 기반을 흔드는 요소였다.

사또는 경명현을 샅샅이 순찰했으나 도둑은 흔적도 없었다.

사또는 도둑에게 주는 경고장을 붙였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아 너를 토벌하러 왔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으며 감히 의적인 양하다니, 참수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수한다면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니 자수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산 아래 나졸들을 배치하고 행인을 서른 명 또는 쉰 명으로 묶어 고개에 오르게 했다. 마을에는 청년들을 시켜 야경을 돌게 했다. 재물을 가난한 집에 던져 놓는 자를 무조건 붙잡으라는 명령도 내렸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다음날 아침 다시 기막힌 소식을 들었다. 그가 순찰을 끝내고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둑이 행인들의 짐을 털었고 그것을 즉시 산 아래 마을의 가난한 집에 던져 넣었다는 것이었다.

관아로 붙잡혀 온 나졸들이 말했다.

“갑자기 주먹만한 돌이 날아와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행인들의 짐이 다 털린 뒤였습니다.”

나졸들은 이마에 돌맹이를 맞아 상처가 나고 퉁퉁 부어 있었다.

“이 미련하고 둔한 놈들아, 그래도 너희가 아전이라고 나랏밥을 먹는단 말이냐.”

사또는 화가 나서 나졸들에게 불기를 스무 대씩 맞는 장형(杖刑)을 내렸다.

마을에서 야경을 한 청년들도 끌려와서 말했다.

“눈을 부릅뜨고 봤습니다요. 정말 바람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요.”

그 청년들도 장형 10대씩을 맞고 돌아갔다.

그 사흘 뒤, 사또는 60명의 나졸과 포졸을 이끌고 징맹이 고개로 갔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키가 작고 땅딸하게 생긴 자가 훌쩍훌쩍 재주를 넘으며 사또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큰소리로 호통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사또.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말하는 투가 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부사를 수행한 포교가 꾸짖었다.

“이 무엄한 놈, 어느 어른 앞인데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포교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생포하려 했다. 그러나 땅딸보 도둑은 잽싸게 몸을 날려 큰 바위 위로 사뿐 올라앉았다. 그리고는 하하하하 배꼽을 잡으며 호기롭게 웃었다.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잡아? 어서 너희들 패랭이나 살펴 보아라.”

포졸들이 패랭이를 벗어보니 패랭이 꼭지가 모두 잘려 땅에 떨어져 있었다. 포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는 큰소리로 외쳤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포졸과 나졸들이 마지못해 칼을 뽑아들고 나섰으나 당할 수가 없었다. 도둑은 포졸과 나졸들의 절반 정도 인원이었으나 이리저리 훤히 날아다니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포졸과 나졸들은 뒤통수와 어깨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사또 혼자만 얻어맞지 않고 온전했다.

사또는 체면이 잔뜩 구겼으나 칼을 뽑아들었다.

“땅딸보 두목놈아, 어서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땅딸보 두목은 아까처럼 훌쩍훌쩍 재주를 넘으며 나타났다. 그러더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선 채 외쳤다.

“사또, 혼자 남았는데 어찌시려구요. 정말 망신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오.”

그러더니 허리춤에서 표검을 뽑아 휘휘 던졌다. 표검들은 사또 곁에 있는 키 큰 소나무 등치에 탁탁탁 소리를 내며 연속적으로 꽂혔다. 부하들은 다 쓰러졌고, 도둑은 한 놈도 잡지 못했고, 표검은 무섭게 날아와 꽂히니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관아로 내려왔다.

【보충】 계양산 경명현은 옛날부터 도둑떼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도 이 고개는 등장한다. 계양산의 군도를 토벌하려다가 실패한 사또는 조선 명종 15년(1560) 부평도호부 부사로 부임한 신건(申健)이라고 기록은 전한다.

경명현 고갯길은 1930년대까지 서곶에서 부평으로 가는 유효한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서곶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뚫리고, 가정동에서 부평으로 가는 안아지길이 자동차 도로로 확장된 뒤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옛 고갯길 옆으로 계양산 관통도로가 뚫리면서 기능이 다시 살아났다.

계산동의 계양산 서록(西麓)에서 시작해서 계양산 기슭을 스치면서 서해 쪽으로 뻗어나간 그 길은 지금 부천과 인천의 북부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주통로가 되어 차량 통행으로 항상 붐빈다.

24. 안아지 고개의 도둑

조선 고종 때에는 원적산의 안아지 고개에 도둑이 끊었다. 그들은 고개를 넘는 행인들만 터는 것이 아니라 계양산과 천마산 주변 마을까지 이동하며 재물이 있다고 알려진 민가를 털었다.

그들이 이십 리나 되는 한들 마을(현재의 백석동)까지 진출해 민가를 털자, 마침 고향집에 와 있던 조정의 감역(監役) 벼슬을 하고 있는 심씨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 불쌍한 민초들의 재물을 털다니 너희가 사람이냐?”

그러자 도둑 두목은 그 자리에서 심감역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아났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은 대책을 논의했다.

“누가 그 도둑들을 토벌할 것인가?”

임금이 근심하자 조병하(趙秉夏)가 나섰다.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도둑을 토벌해 전하의 근심을 덜겠습니다.”

조정은 부평부사를 면직시키고 그를 후임자로 제수했다.

조병하 부사는 부평부사로 취임하자마자 안아지 고개의 도둑 두목을 잡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지혜로운 관장이어서 선부르게 나서지 않고 미리 두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지난날 안아지 고개에서 줄개 노릇을 한 자를 붙잡아 심문했다.

줄개는 이마를 땅바닥에 박고 목숨을 애걸했다.

“사또 나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이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제대로 답한다면 목숨은 살려 주마. 그리고 네 공로로 두목을 잡는다면 죄를 용서하고 상금을 내릴 것이니라.”

부사의 말에 줄개는 머리를 조아렸다.

“물으시는 대로 사뢰겠습니다.”

“두목의 용모에 대해 말해 보아라.”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몸이 호리호리하고 눈빛이 날카롭습니다요. 저희 수하들이 딴 생각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차립니다요. 마치 가슴속을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요.”

“그럼 네놈이 사로잡혀서 지금쯤 심문당하는 것도 알아차리겠구나.”

“그렇습니다요.”

“그놈이 축지법을 쓴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습니다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립니다요. 자기 말로는 하루에 오백리 길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요.”

“자, 모든 것을 말하여라. 그놈이 걷는 버릇, 밥먹을 때의 행동, 잠자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는 줄개로부터 들은 것을 살살이 기록해 두었다. 그는 수하에 많은 나졸을 거느리고 있었고, 서해안에 배치된 군사기지에 병력을 요청할 권리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치밀했다.

그가 부임한 뒤에도 안아지 고개 산적의 민가 털이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두목은 하나의 산맥으로 이어진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을 무대로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다. 그자가 이 마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포위망을 치면 산 너머 엉뚱한 곳에 나타났다.

조병하 부사는 번번히 실패했지만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목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 생포당해 오는 도둑들을 치밀하게 심문했다.

그는 도둑 잡는 일에 거듭 실패하여 과직당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여 찾아온 형에게 말했다.

“형님, 그놈은 여우처럼 영악합니다. 이진 물 속에 그물을 던져 목적인 한 마리 고기를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부가 이골이 나면 물고기

의 모든 버릇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잡게 마련이지요.”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생포한 줄개로부터 들었다. 두목의 이상한 버릇이었다.

줄개가 말했다.

“두목은 도둑질 나가는 걸 출행이라고 합니다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안다. 출행 나갈 때 하는 버릇이라도 있느냐?”

“있습니다요.”

“그게 뭐냐?”

“손에 참기름을 바릅니다요.”

“무슨 기름이냐?”

“모릅니다요. 작은 호리병에서 기름을 손바닥에 부어 손 전체를 문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조병하 부사의 서기(書記)는 그것도 낱낱이 기록하였지만 부사는 그냥 웃어 넘겼다.

“하하하, 참기름을 손에 바르면 민첩해진다고? 참으로 엉뚱한 놈이로구나.”

조병하 부사는 다시 한 달 이상을 도둑 두목과 머리싸움을 벌였다. 그는 예감이 있는 곳에 미리 나줄을 배치하고 어떤 때는 예감이 전혀 없는 곳에 배치하여 두목을 혼란시켰다.

결국 안아지 고개 두목은 눈이 내린 날 붙잡혔다. 부사의 명으로 나줄들이 일부러 눈 위에 계략적으로 거짓처럼 찍어놓은 발자국을 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하여 그 곳을 통과하다가 붙잡힌 것이었다.

조병하 부사는 도둑 두목을 대면하는 순간 혀를 찼다.

“과연 민첩하고 총명하게 생겼구나. 너 같은 자가 병사가 되어 복무한다면 나라 일이 오늘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깝구나.”

도둑 두목은 형틀에 묵힌 채 고개를 들었다.

“사또 나오리, 아까울 것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초들이란 별레만도 못

합니다요. 부모가 굶어죽고, 아내는 양반에게 겁탈당해 자결했는데 이 한 목숨이 어찌 아깝습니까?”

“네놈이 죽음을 앞에 두고 궤변을 늘어놓는구나. 죽을 몸이니 마지막 소원이냐 말하여라.”

조병하 부사가 말했다.

“고아가 되어 외가에 맡겨져 있는 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와 있다. 만나거라.”

아들을 만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둑 두목에게 부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다.

“네놈이 출행할 때 손에 기름을 발랐다는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무슨 기름이냐?”

“쥐기름입니다요.”

“왜 쥐기름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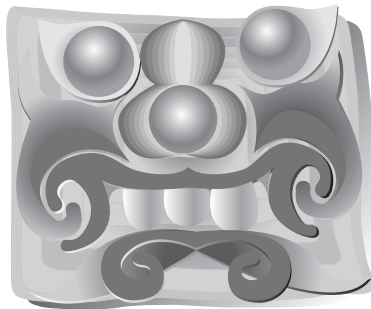
“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니까요. 저는 제가 늘 쥐라고 생각하며 뛰었습니다.”

“그랬겠구나. 너는 정말 쥐처럼 민첩하고 영리했지.”

조병하 부사가 두목을 잡아 처단하자 안아지 고개의 도둑떼는 사라졌다.

【해설】 안아지 고개는 안하지 고개 또는 아흔낮은고개(九十峴)라고도 한다. 천마산 기슭을 스쳐 해발 165m의 원적산 북쪽을 넘어가는 고개이다. 조선 태조가 새 도읍지를 찾으려 할 때, 이 고개 너머 피네미 골짜기가 아흔 아홉 번째 골짜기가 되어 그렇게 이름지었다고 전한다. 가정동에서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가좌동의 철마산 관통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인천 동구 방향에서 부평지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물론 공촌동의 계양산 관통도로(경명로)가 뚫리기 전 서곶에서 자동차를 타고 부평지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계양산 경명현보다 안아지 고개에 도둑이 창궐한 것은 까닭이 있다. 조선 후기에 서곳에 경서동의 난지도와 청라도와 원창동에 세곡의 중간 보관소가 세워졌다. 이곳에서 육로를 타고 서울로 가려면 안아지 고개를 지나야 했다. 그리고 1883년에 인천이 개항된 뒤에 부평으로 가려면 이 곳을 지나야 했던 것이다.



25. 만일사의 이전

만일사(萬日寺)는 계양산의 열두 사찰 중 가장 컸다. 이 절은 처음에 서쪽 쪽 산록(山麓)에 있어서 도랑에 서면 서해를 굽어 볼 수 있었다.

고려 때 문장가이며 부평의 관장을 지낸 이규보(李奎報)는 <망해지(望海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만일사 누대 위에서 바라보니 큰 배가 물결 가운데 있는데 마치 헤엄치는 오리와 같았다. 작은 배는 사람이 물 속에 몸을 묻고 머리를 조금 내놓은 것 같고, 돛단배는 사람이 높은 모자를 쓴 것 같았다. 여러 산과 여러 섬이 아득하게 서로 바라보고 있어서 우뚝 내민 것도 있고 민 듯한 것도 있고 발을 제껴 디딘 듯한 것도 있다. 납작 엎드린 듯한 것도 있고 등마루만 나온 것도 있고 상투같이 솟은 듯한 것도 있고 가운데가 뚫려서 구멍 같은 것도 있고 머리가 둥글어서 일산(日傘)머리 같은 것도 있다.

사찰의 스님이 와서, 내가 보는 것을 도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것은(紫燕島. 영종도의 옛 지명), 저것은 고란도, 기린도이며, 저것은 서울의 곡령, 저것은 승천부의 진산이며 용산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고려의 대문장가가 칭송한 이 전망 좋은 사찰이 엉뚱한 이유로 옮겨가게 되었다.

옛날에 삼남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은 거의 모두 배로 실어 날랐다. 그 배들은 대개 모월곶(毛月串. 북서곶의 옛 지명) 앞바다를 거쳐 한강 하구를 지나 한강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국정이 문란해졌을 때 부패한 관리와 선원들이 세곡을 빼돌리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

한양에 도착한 세곡은 늘 정량보다 부족하여 관리와 사공들이 문책을 받았다. 그들은 해난사고를 당해 배가 침몰하여 세곡을 모두 잃어버렸거나, 좌초당해 곡식을 바다에 버리고 간신히 살아 나왔다는 식으로 변명하였다.

“도대체 모월곶 앞바다에서 왜 번번이 사고가 난단 말이나?”

관리가 따져 묻자 한 도사공이 언젠가 도사공들끼리 마포나루에서 농담 삼아 나눴던 말을 생각해 엉뚱하게 둘러대었다.

“재수 나쁜 절 때문입니다요.”

“재수 나쁜 절이라니?”

“청라도 앞을 지날 때 물의 계양산이 뚜렷하게 보여 사공들은 방향을 잡습니다요.”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나?”

“거기 있는 절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보였다 하면 사고가 납니다요. 이걸 거기를 향해하는 사공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요.”

심문한 관리는 핑계로 듣고 이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그러나 횡령죄를 저지른 다른 도사공들과 부패 관리들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입을 맞추어 똑같은 주장을 했다.

조정 의 어리석은 상급 관리가 그 말을 믿었다.

“그렇다면 그 절을 헐어치워야지.”

그는 부평부사에게 명해 만일사를 이전하게 했다.

부평부사 또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조정의 명령을 집행했다. 그는 만일사의 주지를 불러 말하였다.

“어서 절을 읊기라.”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조선왕조 내내 억불정책을 써온 터라 부평부사는 작은 절의 주지 따위는 우습게 여겼다.

“세곡을 실은 세곡선들이 모월곶 앞바다를 지나다가 너의 절을 보면 침몰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주지는 기가 막혔다.

“사또,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저희 중들은 불당앞에 서서 멀리 앞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바라봅니다. 그 때마다 그들의 무사항해를 기원하곤 합니다. 바다에서 절이 보이면 부처님 은혜를 입으면 입었지 피해를 볼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부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조정이 내린 정책에 이의를 달아 항의하기가 귀찮고 그는 절이 싫었던 것이다.

“조정의 명령이라는데 무슨 이유를 다느냐? 열흘 안에 옮겨가지 않으면 불태우겠다.”

“그건 안됩니다.”

“그럼 오늘 당장 불태우겠다 이 중놈아.”

주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하고 관아를 나왔다.

만일사가 북쪽으로 옮겨간 뒤에도 서곶 앞바다의 해난사고는 계속되었다. 아니, 부패 관리와 도사공들의 횡령이 계속 기승을 부렸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조선 조정은 원창동과 세어도에 세곡 저장 창고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육로를 이용해 서울로 운반해 갔다.

【보충】 불교는 한국의 가장 뿌리깊은 전통 종교인데도 서곶과 검단에는 유서 깊은 사찰이 없다.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할 때 단 하나의 사찰도 없었으며 지금도 번듯한 사찰이 없다. 연희동에서 15대를 살아온 연안이씨 집안은 불교를 신봉하는데 김포 운양리에 있는 용화사에 다녔다.

원로들은 서곶과 검단에 사찰이 없는 이유를 유난히 무속을 신봉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연희동과 백석동, 그리고 오류동에 개신교 교회가 일찌감치 들어선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서구에도 오랜 옛날에는 사찰들이 있었다. 계양산에만 모두 12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남쪽 부평 방향 산록에 2개, 북쪽 오늘의 계양구 방면

산록에 5개, 그리고 서쪽인 오늘날의 서곶 방향에 3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록이 곳곳에 산재한 흔적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동국여지승람〉과 〈부평부읍지〉에는 계양산에 사찰이 셋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 절터가 남아 있고 주변에서 기와 파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명현 서록의 만일사, 계양산 주봉 북면의 명월사(明月寺), 그리고 남록의 봉일사(奉日寺)가 그것이다. 그 중 오늘의 행정구역상 서곶에 속하는 것은 만일사였다. 계양산 서쪽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이 꼭 이 사찰만을 이용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세 사찰을 두루 찾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세 사찰이 같은 시기에 존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서쪽 경명현 초입에 있던 고려 때의 사찰 만일사는 언제 소실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 시대까지 이어온 것은 분명하다. 폐허에서 발견되는 기와 조각과 도자기 조각들이 고려 때 것과 조선시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남동 쪽 원적산에 원적사(元積寺)가, 가좌동 서쪽 마을에 감중사(甘中寺)가 있었다. 설립 시기와 폐지된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마을 원로들의 회고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원적사는 빈대가 많아 문을 닫았고, 감중사는 조선 중기 역불정책에 의해 헐렸고, 한국전쟁 무렵까지 절터가 남아 있었으나 직선의 국방도로를 만들면서 사라져 버렸다 한다.

그리고 검단 가현산에 망해사(望海寺)가 있었으나 빈대가 끊어 스님들이 불태웠다는 전설이 있다.

조선 세종 때에 대제학을 지내고 죽어 경서동 범머리산에 묻힌 류사눌(柳思訥)이 소년시절 고아가 되어 만일사에 와서 학업을 닦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서인지 그의 시 〈망월사시(望月寺詩)〉가 남아 있다. 대제학을 지내고 은퇴하여 만일사를 찾아보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때 경서동에 와서 자신의 묘자리를 보아 둔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다. 시 제목을 보면 만일사가 아닌 듯하나 내용을 보면 만월사가 곧 만일사임을 알 수 있다. 아래 인용시는 〈계양사〉(2002년 12월 계양구)에서 옮겨 실었음을 밝혀 둔다.

망월사시(望月寺詩)

류사눌

曾於此時解童蒙(증어차시해동몽) 일찌기 이 절에서 동몽선습을 익혔거니
豈意如今成老翁(개의여금성노옹) 이처럼 늙으리라 생각이나 했던가
殿佛猶存前日態(전불유존전일태) 대웅전 부처님은 홀로 옛날 그대로인데
居僧非是昔用容(거승비시석용옹) 스님들은 어찌 다 옛날 얼굴들이 아니네
蟹舍落照黃金嫩(해사낙조황금눈) 바다는 낙조를 머금어 황금같이 곱고
山帶浮雲白玉濃(산대부운백옥농) 산들은 백옥 같은 아지랑이 들렀구나
薄暮欲歸歸未得(박고옥귀귀미득) 해는 천천히 저무는데 갈 길은 아득하고
倚樓愁思詔無窮(의루수사고무궁) 다락에 기대어서 만감수심 그지없다

26. 저절로 열리고 닫힌 감중사의 대문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좌동 서쪽 마을을 감중절터 또는 감중절리(甘中節里)라고 불렀다. 그 곳의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옛날에 감중사(甘中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봉우리는 해망산(海望山)이고, 절은 그 산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해가 바라다보였다.

전설에 의하면 그 절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법당 앞에 선 사천왕문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었다. 이것을 구경하러 많은 신도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대개는 뱃사람들이었다.

“그것 참 이상한 조화입니다.”

처음 온 신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주지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뜻이지요.”

“부처님이 뱃사람의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처님은 먼 인도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나라의 왕자이셨으니까요. 우리 절의 부처님은 늘 서해바다를 향해하는 배의 선주님들과 사공님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계속 문을 열고 바라보셔야지요. 그리고 절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꽤 긴데 그 동안은 신도들에게 절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부처님의 뜻인가요?”

“그게 아니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좋다고 일주문 옆으로 제가 길을 내었지요.”

신도들은 참으로 신이(神異)한 일이라고 여겨 시주금을 듬뿍 내놓으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은 빙긋이 웃었다.

“불심이 깊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감중절리에 뱃사람들은 없었지만 5리쯤 떨어진 보도진 해협에 선착장이 있고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루터도 있었다. 거기서 소문이 퍼져나가 많은 뱃사람들이 찾아와 불공을 드렸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두 사람의 선주가 이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고 간 다음날 배가 침몰하여 배와 선원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이다. 하필 침몰한 바다가 절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으며 문이 닫힌 시간이었다.

그러자 불운한 사찰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시주를 많이 하던 선주 신도들이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중사는 문을 닫았다. 일설에 의하면 억불정책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고 법당도 헐렸다고 한다.

27. 원적사의 빈대와 말무덤

석남동과 부평구 산곡동 사이에 뺨어 내린 계양산의 지맥이 봉우리로 우뚝 솟은 것이 원적산이다. 조선시대에 경인운하를 파는 공사를 할 때, 이 산을 뚫지 못해 실패했다 하여 원통함을 쌓았다는 뜻으로 원적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뒤에 한자 표기가 '원(元)자'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다.

이 산에 원적사(元積寺)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풍광이 좋은 숲속에 들어앉았는데다가 도량에 있는 샘물이 맛이 좋았다. 스님들도 불심이 깊고 신자들에게 친절했다.

그래서 신도도 많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빈대가 생기더니 점점 늘어났다. 수천 수만 마리가 법당의 마루 틈과 기둥 틈에 들끓었다. 그러다가 스님이나 신도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진군하는 병사들처럼 쏟아져 나와 몸으로 기어올라 마구 물었다.

절을 찾아왔던 신도들이 몸을 긁으며 울상을 했다.

“주지 스님, 빈대에 수십 군데를 물렸어요. 빈대를 끝까지 안 잡을 건가요?”

주지 스님은 미안한 표정을 했다.

“빈대도 생명인 것을 어떻게 살생을 합니까?”

신도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신도가 줄어들니 절 살림이 어려워지고 스님들은 예불을 해도 신바람이 나지 않았다. 민가로 탁발을 하러 가면 개구쟁이들이 놀려댔다.

“빈대절에서 온 스님, 빈대처럼 생겼네!”

절을 싫어하는 어른들은 쏘아붙였다.

“빈대나 잡아먹으면 배부를 텐데 무슨 탁발을 해웃!”

탁발 스님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지친 몸을 눕히면 빈대가 어디 갔다가

왜 이제 왔느냐 하는 듯이 덤벼들었다.

참다 못한 젊은 스님들은 불멘 소리를 했다.

“주지 스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주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모두 우리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부처님이 주는 시련이네. 참고 이 기면 빨리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네. 사명당 유정대사님은 임진왜란 직후 왜국에 갔을 때 왜의 왕이 쇠로 만든 방에 가두고 펄펄 끓게 불을 뿜으나 참으셨네.”

주지 스님은 절에 빈대가 많아진 것이 부처님이 자신과 젊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불심을 확인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유정대사님은 승병을 일으켜 왜구를 많이 죽였으니까 살생도 하셨지요.”

“허허,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소승들도 나라와 절을 지키기 위해선 빈대를 죽여야 합니다. 빈대는 임진왜란 때 조선 땅에 쳐들어온 왜놈 군대보다도 더 나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불심이 깊던 주지스님도 두 손을 들었다.

“나도 못 참겠네. 어서 빈대를 잡세.”

주지스님은 젊은 스님들과 함께 빈대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데다가 빈대란 놈들이 사람이 잡는다고 없어질 놈들이 아니었다. 잡을수록 더 늘어나니 어쩔 수가 없었다.

주지 스님은 불상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하였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빈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이 곳이 불도의 도량으로 적당치 않다는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 모시고자 하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였다.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빈대가 없어지지 않고, 하루에 한 말(斗)씩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절을 옮기라는 부처님의 계시라고.

절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말 한 마리는 남아 있었다. 스님들은 말 등에 길

마를 엮고 불상과 중요한 기물을 실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움막이라도 짓고 시작하세.”

주지 스님은 젊은 스님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주지스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짐을 가득 실은 말은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실족해 골짜기로 굴러 죽어버렸다.

주지 스님은 거꾸로 처박힌 불상을 내려 반듯이 모셔놓고 울먹였다.

“부처님, 도대체 저한테 어찌라는 겁니까?”

불상이 뭐라고 하는지 젊은 스님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분명히 대답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묻으라고.”

스님들은 불상과 기물들을 죽은 말과 함께 산기슭에 묻었다. 사람의 무덤처럼 봉긋하게 봉분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원적사 불상 와묘(臥墓)’라고 표석을 세웠다.

그 뒤 주지스님과 젊은 스님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백년이나 2백년이 흐른 뒤에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원적사의 말무덤’ 또는 ‘원적사의 부처무덤’이라고 불렀다.

더 많이 세월이 흐른 뒤에 다른 스님들이 불상을 찾아 새 절을 세우려고 그 봉분을 파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28. 빈대 때문에 불태운 망해사

빈대 때문에 건디지 못하고 망한 사찰은 검단에도 있다. 305번 국도를 타고 인천 검단동과 김포시 양촌면의 경계에 있는 가현산 기슭을 스쳐 가면 묘각사라는 사찰 안내판이 나온다. 이 사찰 자리에 옛날에 망해사(望海寺)가 있었다고 전한다. 검단 지역의 가장 큰 산인 가현산의 품속에 앉은 절이라 규모가 꽤 컸고 그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있다. 이 절이 없어진 것은 빈대 때문이라는 전설이 검단 전체에 퍼져 있다.

조선 중기, 심각한 가뭄이 들어 절 살림이 어려워진 어느 해였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지라 시주가 끊어지고 신도들의 발길이 멈춰졌다.

식량이 떨어진 것을 원주스님이 주지스님에게 보고했다.

“이제 보리쌀 한 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지스님이 탄식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신도들이 굶는데 찾아가서 탁발을 하기도 민망하네.”

김포에는 경작지가 많아 풍년이 들면 신도들의 시주로 창고에 쌓이 수백 섬 쌓여 넘치던 절이었는데 흉년이 드니 속절없이 굶주려야 했다.

원주스님이 말했다.

“할 수 없지요. 도반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마를 캐거나 산나물을 캐고 소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와야지요.”

스님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먹을 만한 것은 닥치는 대로 뜯어먹었다. 그러나 곡기를 끊고 살 수는 없었다. 젊은 스님들이 개구리나 뱀, 들쥐 따위를 잡아먹는 일이 생겨났다.

“살생을 하다니? 부처님께 일천 배를 올려 사죄하시게.”

주지스님은 엄한 벌을 내렸으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일은 계속 일어났다.

주지스님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모르는 체함으로써 묵시적인 승낙을 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러면 짚이 망한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지.”

그의 불안은 현실로 나타났다. 겨울이 되자 빈대가 끓기 시작한 것이었다.

“불을 때지 못한 탓입니다. 빈대는 추운 때 많이 생겨나니까요.”

젊은 스님이 말했다.

가을 내내 굶주려서 먹을거리를 찾느라 땀감을 준비하지 못해 스님들은 춥게 살고 있었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개구리, 뱀, 들쥐, 달팽이를 닳치는 대로 먹은 탓이네. 죽은 것들이 빈대가 되어 몰려들고 있는 것이야.”

날이 갈수록 빈대는 점점 늘어나 한 달만에 범당이고 요사체고 빈대가 까맣게 덮였다. 그것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밝은 곳을 싫어한다는데 그게 아니었다. 대낮에 햇빛이 스며드는데도 불상의 이마와 머리 위로 까맣게 기어 올라갔다. 심지어는 대들보 위에 수백 마리가 덩어리가 되어 뭉쳐 있다가 밑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툭 떨어져 내렸다.

“아이쿠 아이쿠, 가려워서 견딜 수 없네.”

스님들은 성스러운 불상 앞이지만 별거벗고 옷을 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찌다 찾아오는 신도들은 빈대에 질색을 했다.

“부처님께 배고픔을 면하게 해 달라고 빌러 왔더니 빈대가 피를 빨아먹네.”

주지스님은 요사체를 버리고 범당 뒤편에 이엉을 엮어 초가집을 지었다. 빈대가 무서워 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그 곳으로 옮겨간 다음날 밤, 빈대들은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다.

스님들은 겨울을 간신히 보내고 보릿고개도 넘겼다. 그러나 빈대는 더 많아졌다.

“주지스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다.”

주지는 짧은 스님이 빈대에 물린 상처로 처참해진 모습을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며 붙잡지 못했다.

주지는 모든 스님들이 떠난 뒤에 혼자 한 해 동안 절을 지켰다. 그러나 끝내 빈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는 짧은 날에 같이 득도한 도반이 주지로 있는 절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상 앞에 일천 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법당 바깥에 쌓아놓은 마른 나무에 부싷돌로 불을 붙였다. 법당은 곧 화염에 잠겼다.

주지스님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화염에 잠긴 법당을 향해 절을 했다. 그리고 모두 재가 된 뒤에 그 곳을 떠났다.

29. 하룻밤에 부화된 달걀들

지금의 단봉초등학교 자리를 옛날부터 대촌(大村)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기막힌 명당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풍수지리상 금계포란형(金鷄卵形)을 품은 듯한 형상)인데다 구전되어 온 전설이 있어서이다.

옛날에 가난한 달걀장수가 있었다. 그는 벼짚으로 엮은 달걀 꾸러미를 수백 개씩 지게에 얹어 지고 팔러 다녔다. 마을마을을 찾아다니다가 닭을 많이 치는 마을에서는 달걀을 사고 달걀이 부족한 마을에서는 팔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내가 정성을 다해 지은 아침밥을 먹고 허리끈을 단단히 매고 일어섰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 달걀을 주세요.”

“또 그 이야기네. 내가 늘 그런다는 걸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부부는 모두 착한 사람이었다.

“내 다녀오겠소.”

남편은 달걀을 담은 지게를 메고 일어섰다.

첫 번째 마을에서 그는 달걀 두 꾸러미를 팔았으나 아들이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굶고 있는 노파에게 달걀 두 개를 주었다.

“이걸 먹고 기운을 차리세요.”

“아이고, 고마우셔라. 내 아들이 돌아오면 말하리다. 어디 사는 뉘시오?”

노파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냥 떠돌아 다니는 장사치입니다. 성은 김가구요.”

두 번째 마을에서 그는 한 꾸러미도 팔지 못했지만 병에 걸려 목숨이 꺼져가는 여인의 입에 날달걀을 까서 넣어 주었다. 그리고 여인의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해 목이 쉬도록 우는 것을 보고 달걀 두 개를 여인 남편에게 주었다.

“어서 새우젓을 조금 넣고 달걀을 찌서 아기에게 먹이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달같이 샘나는 게 아니라 사다 파는 것일 텐데 고맙기가 그지없어요.”

그렇게 저녁 무렵까지 돌아보니 달같은 거의 다 없어졌다. 그러나 팔린 것보다 굶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더 많았다.

해가 누엣누엣 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소나기라도 몰려오려는지 하늘이 컴컴해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부지런히 걸었다. 그가 한 작은 고개에 이르렀을 때 우르릉 팡팡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길가에 작은 원두막이 보였다. 한여름에 참외밭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거나 농사일을 하다가 지치면 쉬려고 만든 원두막이었다.

남은 달같은 담은 지계를 벗어놓고 원두막에 오른 그는 젖은 옷을 벗어 짜서 다시 입었다. 비는 줄기차게 내리고 사위에서 컴컴한 어둠이 밀려왔다.

마침 원두막 안에 관솔밭과 부싯돌이 있었다. 날씨가 눅눅해서 힘들었지만 그는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관솔에 불을 붙였다. 원두막에 이불은 없었지만 호밀 짚으로 곱게 짠 도롱이가 있었다.

도롱이를 어깨에 걸치면 비를 맞지 않고 갈 수는 있지만 그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다.

“주인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미안하게 되었소이다. 비가 내리니 여기서 자고 갈 수밖에 없소이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내가 기다리는 것은 알지만 집으로 갈 수는 없었다. 혼자인데다 두 번은 큰 내를 건너야 하는데 두 곳이 모두 다리가 없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작년에 한 번 물이 불어난 냇물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간 경험이 있는 터라 그는 다시 모험을 할 수 없었다.

“여보, 나는 여기서 자야겠네. 당신 걸으로 돌아가 팔베개를 해 주고 싶지만 모험하는 것보다는 내일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더 낫지.”

그는 마치 아내가 곁에 있을 때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그는 도롱이를 덮고 누웠다.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듣고 있다가 잠이 들었

다. 원두막 바닥이 자꾸 등을 찔렀지만 그는 달콤하게 잤다. 아침에 잠에서 깬 그는 간밤에 꾸는 꿈을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다.

꿈속에서 흰옷에 백발을 하고 지팡이를 든 신령이 말하는 것이었다.

“착한 달걀 장수야. 어서 내려가 보아라.”

거짓말처럼 비가 개고 아침 햇살이 언덕과 들뜰에 가득했다. 그는 꿈이 이상한 터라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아, 이게 웬일인가.”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지계에 남은 달걀 쉼 개가 한꺼번에 저절로 깨지고 병아리가 태어나 있었다. 어미 닭이 품지 않았는데 깨다니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자신의 팔을 꼬집어보기도 하고 병아리들을 손으로 집어 보기도 했다. 병아리는 뼈약뼈약 건강하게 울면서 바둥거렸다.

“허참, 달걀장수가 아니라 병아리 장수를 해야겠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또다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눈앞에서 병아리들이 쑥쑥 자라서 온몸에 금색 털을 한 어른 금닭으로 변해 버렸다.

“허허, 닭장수를 해야겠네. 마침 황어장이 오늘이니까 거기 가서 팔면 되겠네. 금닭은 값이 좋으니까. 그런데 쉼 마리나 되는 닭을 어떻게 저자까지 가져가지?”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금닭들이 나뭇가지와 넝쿨들을 물어다 커다란 사각형의 닭의어리를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그 커다란 닭의어리를 지계에 지고 장터에 가서 팔았다.

그는 거기서 번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었는데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한 일을 계속했다. 그 뒤 김포 사람들은 원두막이 있던 자리를 복을 가져다 주는 자리라 하여 명당이라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믿고 발주인이 집을 지었다. 그도 역시 부자가 되었다.

“이 사람아, 그 달걀 장수가 자네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준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부자가 된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나. 그래서 나도 내 재산을 남을 위해 베풀며 좋은 일을 하는데 쓰겠네.”

그런 전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가운데 뒷날 거기 단봉초등학교가 들어섰다. 검단 사람들은 그런 전설이 이 학교 학생들에게도 계승되어 지혜롭고 충명한 학생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했다.

【보충】 단봉초등학교는 낮은 언덕을 뒤에 두고 좌우에는 낮은 능선이 뻗어 있어 아늑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명당의 전설이 생긴 것으로 본다. 이 학교 서쪽에는 흰바위가 있는 백석산이 있다. 사람들은 백석산의 선바위가 누워 있으면 평범한 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서 있기 때문에 명산이라고 말한다. 이 일대 마을 사람들은 백석산을 자부심으로 안고 있다. 그래서 수 년 전 어떤 채석상이 이 산의 백석을 캐려 했으나 주민들이 노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단의 원로들은 검단 전체가 명당이며, 특히 일곱 장소를 '7대 명당' 이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가 2003년 9월 검단 지역 답사 중에 만난 좌동 출신 양희성 선생은 오룻골, 봉화촌, 안동포, 대촌, 작은외리, 큰외리, 그리고 박고잔(반월촌)을 짚었다.

30. 불로장생의 약초를 캐는 불로리 만수산

검단동 불로리 마을 앞산을 만수산(萬壽山)이라 부른다. 불로장생의 약초가 있었다는 전설 때문에 그런 지명이 붙었다.

옛날에 한 노인 부부가 이 마을에 살았다. 슬하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이 없었다. 딸들을 시집보낸 뒤에는 몸이 늙은데다가 부양할 이들이 없어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의 머리는 백발로 가득했으며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였다.

어느 날 늙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양식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머리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나가서 먹을거리를 구하리다.”

늙은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힘이 없어 남의 집 농사 품을 팔 수도 없고 나무를 해서 저자에 내다 팔 수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거리를 구해요?”

“내가 언젠가 뒷산에서 약초를 캐서 의원한테 좋은 값을 받은 일이 있지 않소?”

“그건 벌써 옛날 일이에요.”

“그래도 가보리다.”

노인은 뱀에 물리지 않게 다리에 행전과 감발을 치고 산으로 올라갔다. 늙은 몸이라 힘에 부쳐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옮기는데, 이거 괜히 왔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그래도 옛날처럼 삼지구엽초를 캐 수만 있다면 그걸로 양식을 바꿀 수 있지.”

노인은 한꺼번에 힘을 빼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풀 속에

박힌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쉬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잔뜩 열고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풀이 무성한 비탈에서 토끼와 고라니가 이름 모를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저놈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며 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토끼와 고라니가 풀 뜯어먹는 일에 열중하여 그는 식은죽먹기처럼 쉽게 그놈들의 뒷다리를 잡을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들을 칩덩굴로 묶어 버렸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군. 내가 빠르고 힘이 좋아 잡은 게 아니라 이것들이 풀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거저 주운 거지. 그런데 고라니와 토끼가 늙은이한테 잡히는지도 모르고 정신 없이 뜯어먹는 풀이라면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을 뜯어 입에 넣었다.

조금은 씹쌀하지만 고소한 맛이 있었다. 그리고 싸아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몸도 늙었지만 배가 고파 고라니와 토끼를 집으로 메고 가기도 힘들 듯했으므로 배를 채우기 위해 풀을 자꾸 뜯어먹었다. 갑자기 흐린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고라니와 토끼를 어깨에 들쳐 댔다. 도저히 어려울 듯했는데 다리에 힘이 솟았다. 어서 마누라한테 갖다줘야지. 그는 빠르게 발을 놀리기 시작했다. 힘이 들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집까지 가서 포획물들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여차여차하여 이것들을 잡게 되었다고 아내에게 설명했다.

“고라니는 빨라서 산 속의 맹수인 호랑이도 놓치기 십상이라는데 늙은이가 어떻게 이걸 산 채로 잡아요? 산짐승은 천하 제일의 포수도 잡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당신이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아요?”

늙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평생에 내가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믿소?”

노인은 역정을 냈다.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러면 어때요? 고라니는 내일 저자에 내다 팔고 토기는 우리가 먹읍시다.”

늙은 부부는 토끼를 고아 먹고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노인을 바라본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여보, 당신 머리가 까매졌어요!”

노인은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까매지다니?”

아내가 다시 말했다.

“여보, 얼굴에 주름살도 없어졌어요.”

노인은 씨름판의 장사가 그러하듯이 두 팔을 위로 뻗쳐 올렸다.

“이상해. 몸에서 힘이 솟는 것 같애.”

노인은 기둥을 잡고 밀어보았다. 그러자 초가집이 무너질 듯 흔들거렸다.

“여보, 왜 이래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내가 소리쳤다.

그 때 그는 깨달았다. 어제 뜯어먹은 풀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그 날, 고라니를 저자에 내다 팔아 식량과 바꾸었다.

노부부는 매일 산으로 가서 그 약초를 먹었다. 부부의 머리는 젊은이처럼 검게 변했고 잃었던 힘도 되찾아 농사일도 하게 되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유명한 풍수가가 끼여 있었다.

“약초도 효험이 있지만 산세도 좋소이다. 산의 형세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상으로 생겼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곳이요. 나는 이 산 밑으로 이사와 살겠소.”

많은 사람들이 뜯어 가는 바람에 그 약초는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그 약초를 먹은 노인 부부와 풍수가는 회갑 후부터 3갑자를 살았다. 1갑자가 60년을 뜻하니 적어도 250살까지 산 것이다.

그런 전설 때문에 산 이름은 만수산이 되고, 마을 이름은 불로리가 되었다. 이 불로리는 조선 말까지는 마산면(馬山面)에 속했는데 그 이름도 이 산의 그런 전설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